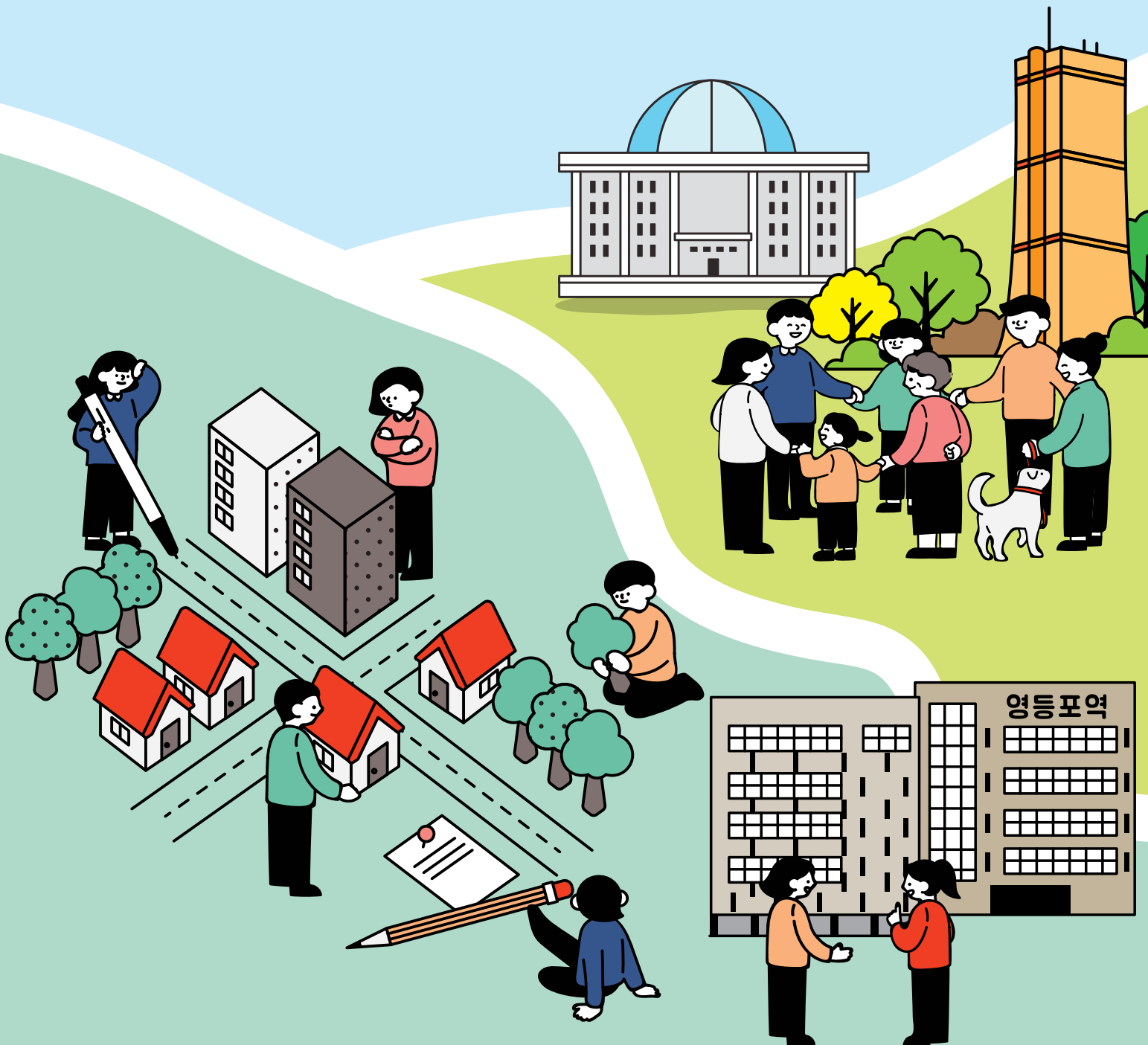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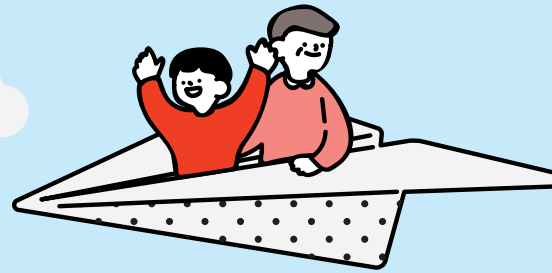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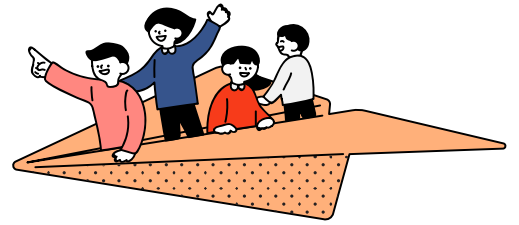


# 마을이야기를 공유합니다



# CONTENTS



## PART 1 마이공 웹진

2	여는 시 '오지게 달리는 마을열차'
3	여는 글 '2020년 영등포구립도서관이 함께하는 '마이공'을 시작하다'
4	여는 글 2020년 영등포구립도서관의 '오! 생활문화 마이공'
6	마을전문가 기고
11	지문회의 '오'지는 생각_0723
13	지역협의체 마이공 활동
35	CoP 활동
43	인터뷰 '오'지게 찾기
47	지문회의 '오'지는 생각_1105
50	지역협의체 기고
54	CoP 기고
69	북 큐레이션 '2020년 오! 생활문화' 관련 도서 목록
72	8월의 기록
75	사서이야기
79	2020 영등포 생활문화 기록<오! 생활문화>
80	'함께 한 우리동네 상점들'

## PART 2 인터뷰 '마을이야기'



82	여는 시 '나는 네 가슴에 아카이빙 됐다'
84	마을인터뷰: 대림동 사람들
88	마을인터뷰: 여의도생강생태공원 자원봉사자모임
95	마을인터뷰: 양평동교회
99	마을인터뷰: 살레시오수도회
106	마을인터뷰: 영등포산업선교회
111	마을인터뷰: 삼원농장 계란 할아버지 '최완규'

# 오지게 달리는 마을열차

이 연 옥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며 포옹할 수도 없었다.  
두 손 꼭 잡을 수도 없었다.  
삼라만상이 태동한 봄에  
얼굴 내민 식물들 보기 무색하기만 했다  
밭이 묶인 집콕의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잿빛일 즈음에  
오지는 마을열차에 몸을 실었다.

희망을 품은 열차 안은 훈훈했다.  
꽃 보자기에 싸인 음식도 나눠먹고  
얼굴묘사 글만 보고 얼굴을 그리는 화가도 되어보았다.  
폰에 찍어 둔 사진을 보고 일상을 얘기했다,  
서로 이어지기를 원하며 깊은 웃음  
웃을 수 있었다.

마을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열차는 쉼 없이 오지게 달렸다.  
진실한 마을공동체와의 만남을 위해  
공유재역과 학습공동체역에 정차하기도 했다.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열의로  
역의 분위기는 무르익어만 갔다.

오지게 달리는 마을열차는 계속  
달리리라  
어우렁더우렁 마을이야기를 싣고.



## 2020년 영등포구립도서관이 함께하는 ‘마이공’을 시작하며

영등포구립도서관 대표관장 이 미 숙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 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시작하는 이 글을 떠올리면서,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과제는 사회변화에 따라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과 변화 기대를 말하고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2018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총 2,749개관 중 1,042(38%)개관이 도서관이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 수 2위인 박물관(1관 평균, 연이용자 178,237명)보다 약 8만3천명(도서관 1관 평균, 연이용자 261,103명)이 앞서고 있는 만큼 접근성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도서관이 장기간 휴관하게 되면서, 공공도서관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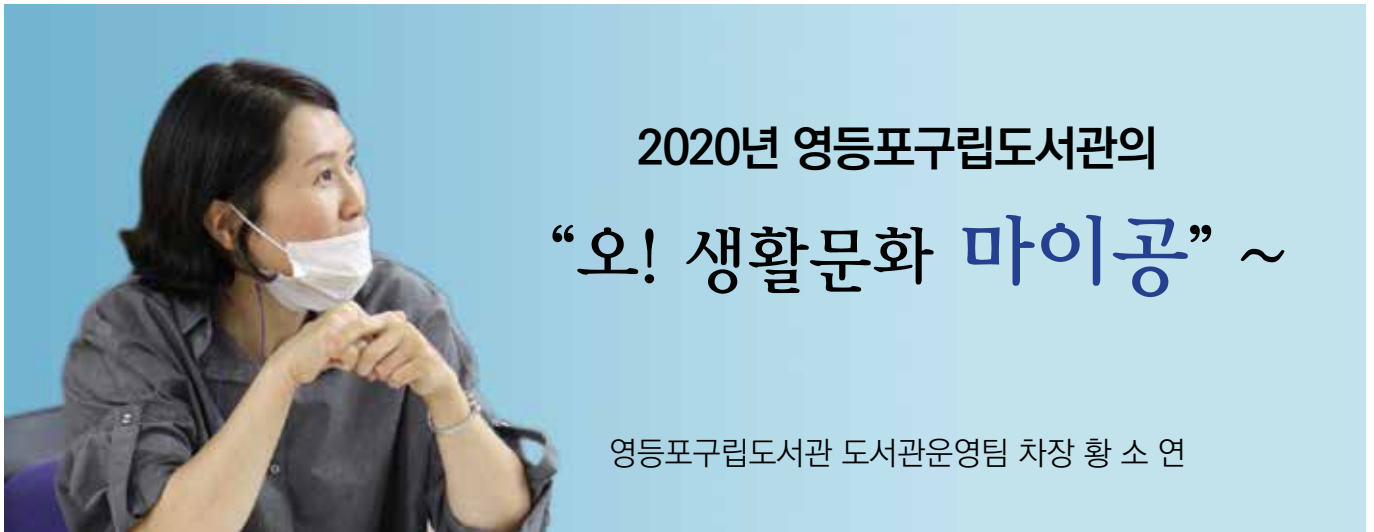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영등포구립도서관에서는 “영등포 기억과 기록”에 대한 중단기사업을 계획하였고, 첫째 “일상의

기록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기록학교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어쩌면 단순하고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이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 아울러 지역에서 우리의 기억을 모으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지역의 일반시민인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생활문화 기록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해를 맞으며 ‘마이공(마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마을 이야기의 주체인 마을 사람과 도서관 사서가 “마을공동체, 기록, 공유, 생활문화”에 대해 학습하면서 영등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되도록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유하려고 한다.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학습하는 매과정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구매, 지구환경보호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등을 소소하게 실천하는 등 재미있는 시도를 함께 한다.

‘마이공’은 성과가 아닌 성장,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생활문화 활동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일상에서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게 시도하고 발견하는 일이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 공공재(공유재), 마을공동체, 생활문화, 기록

어떠세요? 흔히 듣던 말들인가요?

제겐 낯선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4가지 키워드(Key word)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듣고 만나고 이야기하며 서로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하려 합니다.

또한, 그 과정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고 쌓여질 그 기록들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주어졌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절을 통과하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만 더불어 반목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고민들 속에서 앞서 말한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우리들이 만나게 될 과정과 남겨질 기록은 어떠한 모습이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도서관과 사서들이 이런 활동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입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시작하기에 여러분의 **함께 함**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 사서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전문가를 모시고 마을공동체, 공유재(공공재), 생활문화, 기록하기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CoP<sup>1)</sup> 활동)
- 우리 마을의 공동체에 대해 ‘오’지계<sup>2)</sup> 알아보고, 지속성을 잃고 사라지곤하는 그들을 찾아가 속사정과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 만나고 찾은 **마을이야기**를 공유하고 책자 형태로 또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동네 사람들의 입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는 경험을 나눕니다.
- ‘마을기록 아카이브’ 및 ‘생활문화 콘텐츠’를 마련하여 계속 쌓이도록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 함께 했던 과정들을 나누는 ‘오’지는 마을잔치를 풍성하게 벌입니다.
- 내년엔 만날 주제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너머를 꿈꿔 봅니다.

글로 적고 보니 뭔가 거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기억할 만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과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소소한 일입니다.

설렘과 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한 “오! 생활문화 **마이공**” 에 함께하는 분들의 힘찬 응원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걸음 내딛습니다.



1) CoP = Community of Practice, 학습공동체

2) 오지다 =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아무지고 실속있다. 옹골지다(경북,충청)의 방언

## 영등포에서 나는 작은 꿈을 꾸다

강 정 숙



저는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마을활동가입니다. 영등포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앞집과 슈퍼만이 내가 아는 이웃이었다가 십년이 지나서야 아파트 부녀회, 구청에서 개최한 ‘영희네 (영등포희망동네의 준말) 마을워크숍’ 등 영등포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약간씩 발을 담그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다시 가까워진 것은 직장에서 놓여난 2016년부터입니다. 영등포 활동가들을 간헐적으로 만나다가 양평2동 마을계획단이 조직되면서 집 부근

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칩거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의 장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저의 경험과 관심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문한 결과 <영등포, 양평2동의 근현대 역사 발굴>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유마을이야기책을 만들고 영등포구립도서관의 영등포생활문화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마을해설사 교육에도 참가하게 되었지요.

제가 하려는 일이 마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전 우리나라가 근현대에 굴절과 곡절이 많기에 지역에 발굴할 이야기거리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은퇴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저의 활동이 영등포에서 의미있게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 영등포에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

영등포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분과장 정 유 경

저는 영등포마을해설사라는 멋진 이름표를 단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영등포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지 않았지만, 결혼 후 영등포에서 살게 되었고 또 영등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 영등포의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생활영역이던 영등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을로 한발 나서기 시작한 첫 단추는 마을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내 가족,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안에서 자라는 내 아이들과 이웃의 아이들이 더 좋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마을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니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마을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등포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의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등포의 역사를 배우고, 마을의 공간을 알아가는 일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보물과도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역사와 변화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과거의 영등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영등포도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영등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될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영등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영등포에서 살아가는 마을사람일 것입니다.

마을탐방수업을 하면서 많은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과 걸어 다니며 만나는 이웃 분들은 아이들을 환하게 웃어주시며 맞아주십니다. 수업에 함께 하셨던 경찰관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니 “우리동네 마을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을의 구성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함께 하는 이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휴관일에도 일부러 나와 문을 열어주신 도서관 선생님, 방문하는 친구들을 위해 환영안내문을 붙여주신 복지관 선생님,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 더 반가웠다는 선생님들을 보며 마을해설사로서의 나의 역할이 이렇게 마을 안에 스며드는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 또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었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등포가 그런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나의 아름다운 아이들, 그리고 도림동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최 지 영



2013년이였다. 아이들을 만난 건.

당시 내가 몸담고 있던 단체가 도림동에 있었고 그 동네에서 청소년휴카페 아이공유 봄을 운영 중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동네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지원을 했다. 청소년휴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동네 단위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마을살이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선정이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삼던 단체 총괄실무책임자였던 나는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 담당자분께 정보를 듣고 청소년휴카페 사업에 지원했고 덜컥 선정이 돼버렸다. 문래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좁아 도림동으로 이사를하기로 결정,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고 이사를 했다. 동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청소년 공간을 찾아다니며 조사도 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아이공유 봄을 만들어나갔다.

청소년휴카페 아이공유 봄이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아이들 중 호기심 많은 몇몇이 아이공유(이하 아공)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보드게임이 큰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소파가 있었으며 마치 잠수함을 연상시키듯 벽은 온통 파란 색으로 칠해져있던 곳. 가장 중요한 건, 잔소리하거나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이 없다는 것. 언제든 그냥 와서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었던 곳.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곳. 그런 곳이었다. 아이들의 입소문은 대단하다. 아공 주변엔 영등포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영중학교가 있었고 부근 학교에 다니는 그리고 도림동에 사는 아이들이 아공에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보니 우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일상의 시간을 같이 하며 많은 것들을 했다. 보드게임하는 날을 정해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방학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녁시간 특별강좌를 열기도 했다. 파자마 파티를 하자고 해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고 아공에서 침낭을 깔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떡볶이를 해먹기도, 밥을 같이 먹기도 하면서 우리의 시공간을 채워나갔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다보니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물론 공동체의 명칭이 붙진 않았지만 충분히 느꼈다. 우리만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만의 향기가 있었다. 부모님들은 아공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냈으며 아이들 또한 아공을 운영하던 최씨와 오징어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지금 생각하니 우린 친구였다.

그때 만난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나는 시준이, 기연이, 보람이. 나의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초등학교 4학년때 만난 기연이는 지금 고1이 되었다. 시준이와 보람이는 대학 신입생이다. 우리는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만나 밥을 같이 먹으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아공 공간은 없어졌으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난다. 집, 학교, 학원 말고는 다른 공동체의 경험이 없었던 아이들이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에게 겁사리 마음을 열었던 순수한 아이들이었다. 물론 말과 행동은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마냥 거칠긴 했다. 우리가 같이 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아이들은 더 마음을 내주었다. 신뢰와 사랑이 우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는가. 아공이 없었더라면 인연 맺지 못했을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마을에서 마을사람들과 같이 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공간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쌓이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나는 그때 그 아이들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내게는 세상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비록 지금 아공은 없어졌다. 허나 우리 마음속에, 살갓에 그 기억과 흔적은 남아있다. 아마도 기연, 시준, 보람 그리고 아공을 기억하는 아이들과 마

을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살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아공의 기억으로 인해 타인을 만나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공동체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지금의 나 또한 그러하다. 아공에서 영등포 마을 지원센터로 또 영등포마을자치센터로 활동공간은 옮겼으나 여전히 공동체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내가 특별히 공동체를 좋아해서일까?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했던 시간과 공간이, 웃고 즐기며 아프기도 했던 기억이 나를 여전히 이곳에 남게 하는 것이다. 도림동에서, 아공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아이들이 나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동네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시준이도, 기연이도, 보람이도 그랬으면 좋겠다한다.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을 때 어찌면 우린 의기투합해 마을공간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그대도 한번 들려주시라. 아마도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과 흔적이 그대의 몸과 마음에 남을 것이니.



## 동네를 기록하는 호모아키비스트를 제안하며

최연희 정말기록당 상임활동가

###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꽤 성공한 카메라 광고 문구이다. 정말 기록이 기억을 지배할까? 어릴 적 자의 또는 타의로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편지를 쓰고, 일하면서 작업일지를 쓰고, 아이를 키우며 육아일기를 쓴 우리 모두는 생애 내내 기록이 일상이었다.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 일상은 엉망이 되었을지 모른다.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시절 동굴에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기록 본능은 현대사회에서 기록하는 인간 ‘호모 아키비스트’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삶, 일상 모든 것이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무한으로 공유되고 있다. 기록은 기억이자 삶의 파편이며 때로는 상처를 위로하기도 한다. 또한 매우 훌륭한 세대교류 수단이자 공동체를 다채롭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오랜 역사가 있는 동네답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정릉에서 활동하면서 마을기록을 하고 있다. 거창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들과 수다를 떨다가 우리 동네 왜 떡집이 많은가 궁금증이 생겨 찾아다녔고 그 이야기를 주민들과 마을축제에서 공유했다. 40년 넘은 동네 빵집, 비만 오면 떠내려갔다는 다리, 버스 종점... 어제와 다른 오늘, 사라져가는 동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지만 괜찮다. 마을기록의 가치는 주민 스스로 매기는 것이니까. 기억은 온전하지 않고 기록도 완전하지 않지만 마을기록은 정답이 아니고 완성도 아니다.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모으고 이웃이 되는 과정은 힘들어도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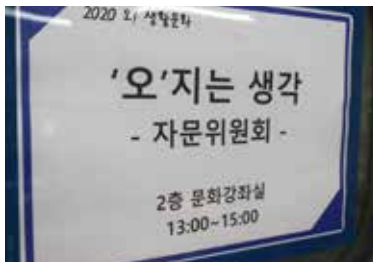
마을기록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자 플랫폼은 도서관이다. 정보의 보고이자 아카이브 공간으로 도서관 만한 곳이 또 있을까? 도서관의 한 벽면, 서가 한 편을 주기적으로 다른 마을기록, 일상기록으로 채울 수 있다면 도서관에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지면을 빌어 우리 모두 동네를 기록하는 호모아키비스트가 되자고 청하고 싶다.



## '오'지는 생각

1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사람, 생활, 날씨, 공유, 공간, 마을, 기록' 중 마음이 닿는 단어를 골라 자신에게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함.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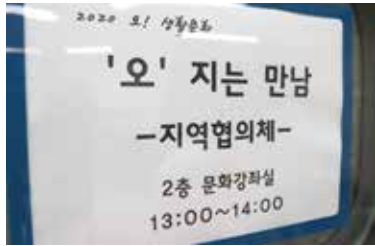
이미숙 대표관장이 영등포구립도서관 2020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함.

## 3

생활문화 사업으로서 기록의 방향성과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토의함.

- '생활문화'는 생활방식, 동아리활동, 예술활동, 놀이문화 등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임.
-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기록'하는 것이 도서관의 생활문화라고 생각함.
- 시간과 예산으로 무엇을 먼저 기록할 것인지 방향성이 필요한데, 올해는 도서관이 마을을 알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만나고 기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수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 동별 분류해보고 한 곳씩 만나거나 영등포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함.
- 지원(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사업지기들은 이미 자료가 남아있으니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도 특성있는 기록이 될 듯. 영등포 역사자료가 부족하니 옛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한 곳에서 몇 대째 살고 계신 분도 있음)을 추천받아 기록하거나 20년지기 학부모모임, 직능 단체, 자조모임, 영등포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 등 공동체를 일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누가 되었던 감동이 있을 것임.
- 마을공동체 6곳을 기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홍보지 등 자료를 모아 놓는 방법도 있음.
- 공동체 구성원 중 한명을 집중인터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음.
-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태도로 주민들과 함께 나눈 시간에 대한 기록,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영등포구립도서관이 되길 바램.

## ‘오’지는 만남



2020년 영등포구립도서관의 ‘오! 생활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갈 지역협의체 (기록단)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숙 관장이 영등포구립도서관의 <2020 영등포 생활문화 기록 ‘오! 생활문화’>를 소개했습니다.

2019년 영등포 생활문화 기록학교에 이어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생활 문화 기록을 시작한다는 것과 마을을 기록하고 자료화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길원 매니저가 오감(귀, 눈, 코, 입, 손) 소개 프로그램 진행하며 지역 협의체 첫모임을 화기애애하게 이끌었습니다.

나의 오감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표하면서 각자 자신을 소개했고, 발표자가 자신과 감성적으로 통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서 발표 순서를 이어 갔습니다.



66

우리집 아이 소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귀  
삼겹살 굽는 소리, 비 오는 날 부침개 부치는 소리를 좋아하는 귀

문자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눈  
하얗게 눈 내린 자작나무숲을 좋아하는 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나의 숨냄새를 맡으며 사는 코  
아파트 뒷산 소나무숲 솔향기를 좋아하는 코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내고 있는 입  
노래를 담고 싶어 가끔씩 시 낭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입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주고싶어 하는 착한 손  
묵사발처럼 탄력있는 촉감을 좋아하는 손

99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특별히 즐기는 일이 서로 다른 각자의 귀, 눈, 코, 입, 손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이 녹고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이연주 사서가 '오! 생활문화'를 추가 설명하며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 "오지다"는 충분히, 흡족하게, 부족함 없이 사업을 즐기겠다는 뜻으로 사용함.



- 마을공동체와 마을기록에 대해서 알차게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함.



- 어떤 공동체를 먼저 만나고 기록할 것인지는 지역협의체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려고 함.

- 마을공동체 만남과 기록 과정에서 모아지는 자료를 전용상자에도 모으고 전자자료화 하려고 함.

10월 말까지 지역협의체, CoP, 마을공동체 만남 등 일정도 공유했습니다.

## ‘오’지는 만남



오래도록 내리던 비가 그치고 잠깐 더위가 찾아온 날, 문래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길원 매니저의 진행으로 ‘마을작가 갤러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요, 낙타 무릎에 범의 발굽이며, 털은 짧고 잿빛이며 모양은 어질고 소리는 처량하며, 귀는 드리워진 구름장 같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어금니의 크기가 2위, 길이는 1장 여다. 코는 어금니보다 긴데, 구부리고 떠는 것이 자벌레 같고, 말아 붙이는 것은 굴뚝이 같으며, 그 끝은 누에 꿈무늬 같은데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 두르르 말아 입에 넣는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발췌글입니다.

어떤 동물을 묘사한 글인지 아시겠나요?

- 1) A3 종이를 반으로 접고
- 2) 모서리에 아주 작게 나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한 뒤
- 3) 왼쪽 면에 내 얼굴에 대한 설명을 글로 씁니다.
- 4) 종이를 섞어 나눠가진 뒤
- 5) 왼쪽 면 설명글만 읽고 오른쪽 면에 설명된 얼굴을 그립니다.







모두의 그림을 모아 전시하니 문화강좌실 한쪽 벽이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작품이 탄생해 분위기가 한층 유쾌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 아직은 어색한 사이에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려야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갤러리에 전시해놓고 초상화의 주인공을 찾아보는 재미와 신기함에 “와!”, “오!”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맑고 선한 눈빛,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내놓는 입술’이라고 희망사항을 쓰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두 턱인데 곧 세 턱이 될 것 같은’, ‘달걀 보다 큰 오리알 모양 얼굴형’이라는 재밌는 표현은 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쌍꺼풀 한쪽은 외꺼풀’이라던가 ‘광대뼈 나와 있고 눈썹이 희미’, ‘왼쪽 입술 옆 작은 점’처럼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였고

‘서늘한 눈’, ‘온화한 코’, ‘표준형’처럼 ‘어떻게 그려야 서늘하고 온화하고 표준이지?’ 펜을 들고 망설여야하는 설명도 많았습니다.

평범함, 적당한 크기, 보통두께...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cm, g, ml와 같은 도량형은 통일이 되어 있지만 평범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의 표현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호소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의 중요한 태도인데, 참 어렵지요? 그래도 함께 노력해보아요.

## ‘오’지는 만남: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

**일** 시 : 2020-8.20., 27.(목) 14:30~17:00  
**장** 소 :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  
**주** 제 :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퍼실리테이터** :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 내 용

마을공동체를 기록한다면 공동체의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가?  
 사람? 특징? 행사? 모든 것?  
 공동체를 왜 만나고 싶은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록일까? 조사일까?  
 지역아카이브란 무엇일까?

이전부터 마을은 있었지만 도시지역에서 마을공동체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20년 사이의 일. 이웃을 돌아볼 여유없이 열심히 살기만 하는 상황을 성찰하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음.





도서관의 지역아카이브 :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나 둘 모여져가는 공간, 주민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창구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 기록의 3격

- 1) 자격 : 내용-구조-맥락(과정, 정보)을 확보해야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음. 사진이 어디서 왜 찍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하기 어려움.
- 2) 골격(분류) : 기록을 분류하려면 기록을 확보하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함. 그 다음 사람들이 찾기 쉽게 분류할 수 있음.
- 3) 품격 : 맥락을 확보하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2020년 기록으로는 2021년을 알 수 없음. 희노애락을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풍부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품격을 만듦.

기록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값어치를 가지고 있음. 시장의 논리와 무관하게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가치있게 함.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목록을 정리해보자.

그 중 앞서 해보고 싶은 것과 차차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 지속시키자.

기록 작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

미국 스토리코어스(StoryCorps) 구술프로젝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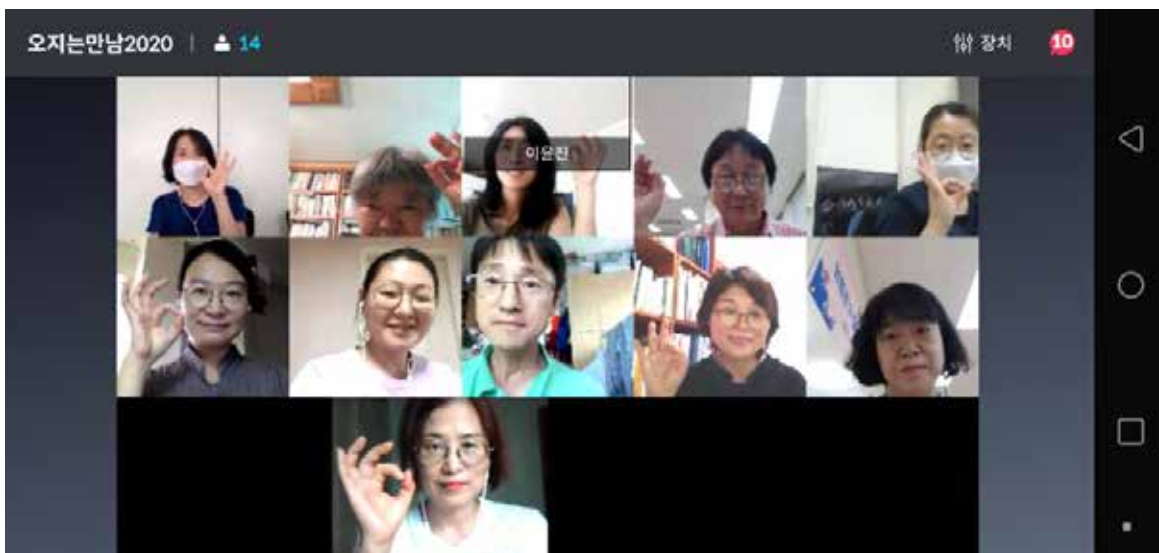
뉴욕 기차역에 부스 만들어 시민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함. 가장 기뻐던 일, 슬펐던 일, 기억나는 사람 등. 3만건 되니 범주가 분류됨.

‘어머니’라는 카테고리 형성되어 ‘고마워요, 엄마(엄마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됨.

기록 작업은 지루함. 한순간에 반짝 나오지 않음. 꾸준히 이야기를 남기다보면 어느새 모아진 이야기들이 큰 빛을 내는 것이 기록 작업의 특징.

## 인터뷰 조언

- 1) 2~3명이 한조가 되어 인터뷰 나가면 좋겠음.
- 2) 7,80대 어르신들은 식민과 해방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등 갖은 세월의 풍파를 다 맞으신 분들. 조선 말기 태어나셨을 조부모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나는 손주들까지 생각하면 앞뒤 100년, 이 어르신들만큼 숨가쁘게 살아온 분들이 없음. 이를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이 좋음.
- 3) 인터뷰 후속사업을 잘해야 함. 인터뷰 요청할 때만 친절하고 공손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연락드리고 다시 만나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음. 기록은 과정도 중요.



## 2020년 8월 27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오’지는 만남: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2

마을기록에 관하여 많은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니 마이공 2호에 다 실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담았습니다.

<b>일</b>	<b>시</b> : 2020년 8월 27일, 14:30~17:00
<b>장</b>	<b>소</b> :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
<b>방</b>	<b>식</b> : 온라인 화상회의(그루미비즈 사용)
<b>주</b>	<b>제</b> : 마을기록 아카이빙의 실제
<b>퍼실리테이터</b>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 내 용

####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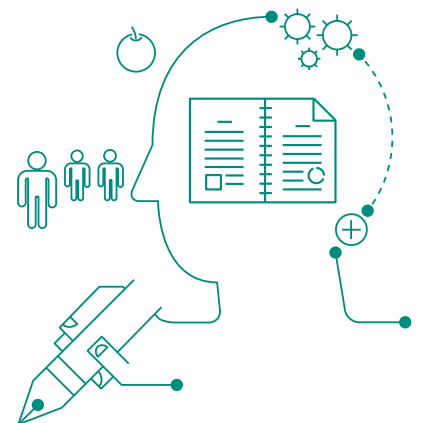
-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세운 성적이나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  
예) 중요한 기록이다. 의미 있는 기록이다. 기록하다. 기록을 남기다. 기록되다.

#### 아카이브

-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문서, 사진, 동영상, 포스터, 각종 참고자료, 기념품, 언론자료 등)
-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 또는 기구

#### 레코드

- 글이나 기호 등으로 남긴 자료
- 업무기록/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
-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세운 성적이나 결과를 수치로 나타냄.
- 사람의 행적  
※ 보존연한 동안 관리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도 있음.



### 기억하기1 - 아카이브란?

아카이브란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뜻하며, 그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구도 아카이브라고 함.

모든 자료는 아카이브가 될 수 있지만, 아무 자료나 아카이브(자료)가 되는 것은 아님.

가치 있는 마을아카이브(기관)는 마을기록활동가들이 만들어 냄.

### 기억하기2 - 아카이빙 프로세스

기록관리(아카이빙)는 획득 - 관리 - 활용의 절차로 이루어짐.

아카이브의 성격에 따라 만들거나 모으는 기록이 정해짐.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분류해야 함.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해야 함.

획득, 관리, 보존되는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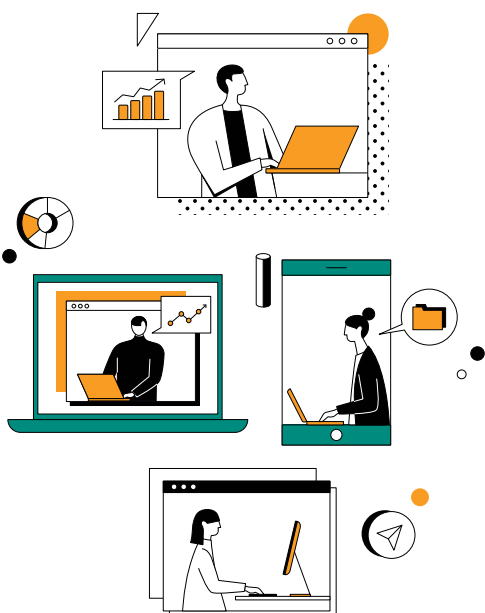
- 획득 : 가치 있는 기록을 만들어서 남기거나 모으는 일(생산, 수집, 이관 등)
- 관리 :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니는 방법(정리, 분류, 등록, 기술, 평가, 선별, 보존)
- 활용 : 필요할 때 여럿이 함께 사용하기(열람, 전시, 책자발간, 광고, 교육, 웹서비스, 폐기)

### 기억하기3 - 기록의 분류

기록관리에서 분류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뼈대와 같음.

분류체계는 기록물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서서히 만들어가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바뀌서는 안됨. 생활문화 기록의 분류체계를 통해 영등포 주민들의 일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희망찬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음.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기록’은 명사이고, ‘기록하다’는 동사입니다.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을 만든다는 의미보다  
**‘기록을 매개로 지역활동을 한다’**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과거의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해석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기록활동을** 한 결과를 공유하면,  
언제든지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3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오’지는 만남: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3

일	시 : 2020년 9월 3일, 15:00~17:00
장	소 :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그루미비즈 사용)
주	제 :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아카이브’란?
퍼실리테이터	: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 내용

#### 1. 준비하기

##### 〈마을 아카이브의 개념〉

마을 아카이브에 담길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 지역기록 : 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흔적. 인물, 사건, 사람, 공간, 상징, 제도 등.
- 일상 기록 : 주민들의 삶의 흔적. 주민들의 을 담은 기록들.

마을 아카이브 자료는 아날로그 자료일 수도, 디지털 자료일 수도 있음.

마을 아카이브 자료는 어린이, 청소년, 연구자, 예술가, 일반주민 등 누구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임.

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은 법에 의해 관리됨.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미있게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들은 누가 대신 관리해주지 않음. 마을 아카이브의 개념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모아보자는 것.

#####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1) 사람과 할 일

- 영등포구의 모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보자고 모인 우리가 영등포 마을 아카이브의 주인 공. 주민 자발성분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계기를 만들어서 더 좋음. 1회성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함. 기록자 주민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기록자 주민들이 일정한 의무도 가져야 함.



- 정체성 확인 : 기록자들이 나는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데 꽤 오래 걸림. 도서관에서 활동가 신분증을 만들어줘서 소통의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더욱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2) 공간과 자원

- 모아온 자료를 축적하는 공간이 필요함. 영등포는 대림도서관 지하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음.
- 필수 자원 및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함.

## 3) 일정과 운영방안

- '계획'을 말하는 것. 올해 활동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논의는 계획으로 갈 것임. 염두해 두고 있으면 됨.

## 4) 기록(삶의 흔적)

- 기록 또는 기록물을 경직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삶의 흔적이면 마을 아카이브에 들어올 자격이 있음. 가치판단의 문제.



- 우리들의 일상생활 :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과 관련된 물건, 사건, 장면(순간), 장소(공간). 일상의 변화와 변화를 가져온 계기나 사건도 포함됨.
- 지역 : 영등포구의 의미있는 공간(장소), 사람/공동체/단체, 교통, 예술, 교육, 취미/여가, 지리, 행정 등. 지역의 변화와 변화를 가져온 계기나 사건도 포함됨.

**문턱이 없음. 모든 것은 기록거리가 될 수 있음.**

#### 5) 기록의 모양새, 다양한 종류

- 종이류 : 문서, 책자(단행본, 자료집, 연속간행물 등), 입장료 낸 티켓, 선전물(유인물, 전단지, 포스터 등), 지도, 탁본, 도면 등 대상이 엄청나게 많음.
- 시청각 자료 : 사진(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조직 정체성, 내부 조직 구성 등.
- 물건 : 기념품, 생활용품, 의복, 액세서리 등

**“이런 것이 가치있을까?” 선별하는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음.**

**대략 범주, “우리는 이런 것을 영등포구 일상기록이라고 할거야!”라는 가치기준을 정하기.**

**중요한 것은 영등포구 주민의 기록은 영등포구 주민들만이 할 수 있음.**



## 2. 절차와 과정

### 〈로드맵〉

- 준비 : 우리 아카이브의 모습 그리기. 사람, 할 일, 공간, 자원, 조직의 상 등.
- 시범운영 :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경험 및 교훈 학습. 수집, 정리/분류, 등록/기술, 평가, 보존, 서비스 등.
- 본격운영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아카이브 운영. 사업계획에 의한 운영, 외부와 연대.

### 〈주민과 함께 하는 아카이브〉

- 생산/수집 : 기록물을 있게 만드는 일(영상, 녹화, 녹음, 글, 사진 등 다 생산하는 작업. 자료 수집) => 주민들이 하면 좋음.
- 정리/분류, 관리/보존 :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 도서관이 하면 좋음.
- 서비스/활용 : 모두가 함께 하는 일 => 활동가나 사서들 말고도 여러 주민들이 함께 하면 좋음.

**영등포 마을 아카이브 = 영등포 주민들의 생활문화 자원이 모여져 있는 은행**



### 3. 주변과 협력하기

#### 〈연대 / 협력 / Network〉

- 행정기관(구청, 주민자치지원센터 등), 문화기관, 전문가들과 교류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가들과 네트워크 하는 것도 좋음.
- 영등포구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호흡하면서 무엇을 기록하면 좋을지, 무엇을 남기면 후대에 좋을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4. 미래 모습

### 〈공동체와 아카이브〉

무엇을 담아 갈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 모습은? 우리는 왜 생활문화 기록활동을 하는가?

각자의 계기와 참여동기가 다르고 아직은 실체가 없고 불안하지만, 계속 이야기 나누고 활동하면서 주민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어느덧 우리 모습을 서로 공감하고 글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임.

이 모든 고민과 대화와 실천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함.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한 뒤 개선방향 세워 실천하고 평가하는 선순환 과정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주민 주도 마을아카이브. 영등포구는 도서관이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으니 좋은 기회.

**영등포 밖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함.**

## 5. 마무리

### 〈역사나 기록의 관점에서〉

그 동안 역사서나 교재 안에는 주로 국가 차원의 이야기(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앙중심)가 담겨 있음. 한국현대사 민주주의 과정과 승리, 민의 이야기를 담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학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있음.

우리들 이야기를 기록물로 만들고 공유하는 일을 한다는 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삶의 흔적을 역사의 소재로 남기려는 노력이 아직 전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레임.

### 〈공동체의 관점에서〉

마을이라는 머릿속 감상적 기억과 공동체라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거대하고 거창한 이름 '마을공동체'. 마을은 무엇인지, 공동체는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움.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잘 살기를 시도하는 모양, 이해다툼이나 시기질투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까? 대등하고 협력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음.

**지금 우리의 시도는 후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도. 몸으로 부딪히며 해보자!**

## 2020년 9월 10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오’지는 만남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14:00~16:00
장	소 : 문래도서관 5층
방	식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2개조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 마음열기

#### 3의 법칙

- ‘3의 법칙’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한명이나 두명은 변화를 만들 수 없지만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 앞으로 인터뷰 나갈 곳이 마을공동체이고, 지금 모여 있는 우리들도 3명 이상이 모인 공동체여서 ‘3의 법칙’을 시청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0문 10답

- 각자 10가지 질문에 답을 쓴 뒤, 공유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1) 나는 \_\_\_\_\_ 하는 사람이다.
- 2) 나는 어제 밤 10시에 \_\_\_\_\_ 를 했다.
- 3) 나는 시간이 남을 때 \_\_\_\_\_ 하는 것을 좋아한다.
- 4) 나는 \_\_\_\_\_ 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 5) 나는 10년 뒤에 \_\_\_\_\_ 를 하고 있을 것이다.
- 6) 나는 \_\_\_\_\_ 할 때 화가 난다.
- 7)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_\_\_\_\_ 이다.
- 8) 나는 \_\_\_\_\_ 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 9) 나의 보물 1호는 \_\_\_\_\_ 이다.
- 10) 나는 이 모임에서 \_\_\_\_\_ 를 책임지겠다.





### 인터뷰 할 공동체 우선순위 선정

- A조, B조 각각 인터뷰하고 싶은 장소 정하는 논의를 했고, 두 개 조의 논의 내용을 합쳐 우선 인터뷰할 6곳을 선정했습니다.

- 1) 풍도약국 : 정선이, 정노천, 김인용, 이길원, 이윤진
- 2) 살레시오수도원 : 권오희, 홍정희, 안주연, 이길원, 이윤진
- 3) 양평동교회 : 강명숙, 최연희, 이연주, 이길원, 이윤진
- 4) 영등포산업선교회 : 강정숙, 이경희, 이길원, 이윤진
- 5) 여의도셋강생태공원 : 이윤재, 이연옥, 윤이나, 이길원, 이윤진
- 6) 대림동사람들 : 이국희, 황소연, 이길원, 이윤진



- 위 장소 중 인터뷰하기 어려운 곳이 생기면 삼원농장, 선유문화공방, 서울의료사협 순으로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풍도약국' 섭외가 어려워져 '삼원농장'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 ID카드 디자인 논의

- 필기도구와 종이 이미지를 넣어 기록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 2020년 9월 17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오'지는 만남 : 아카이브와 구술

일	시 : 2020년 9월 17일(목), 15:00~17:00
장	소 :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
주	제 : 아카이브와 구술사
퍼실리테이터	: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 구술사의 배경과 의미

#### 1) 왜 구술사인가?

사람들이 살아 온 바와 살아가는 바를 '기록'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불가능. '기록'은 모두 객관적이고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필요한 기록이 모두 정확하게 생산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기록의 결실 및 부재 상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역사 서술이 중앙·권력·기득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의 한계가 공감되면서, 그간 소외되어 왔던 영역을 역사의 대상분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음.

즉, 개인의 삶과 일상의 가치가 널리 인식되면서 이 분야의 기록자료는 물론이고 구술자료 또한 중요한 기록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이 주체와 대상이 되는 현대사 분야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고, 구술사 연구가 그 효용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구술채록 내용이 역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 2) 기억과 기록

##### <기억>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의 경험과 기억은 그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사람의 머리와 가슴으로 보존되는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거나 변화될 수 있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하므로, 기록의 형태로 변환.

##### <기록>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기관의 투명성, 역사성,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생산 관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함.

민간영역에서의 기록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흔적들을 모두 포괄함.

### 3) 구술생애사 외의 다양한 인터뷰들

‘면담’, ‘인터뷰’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구술생애사 인터뷰는 이른바 질적연구 차원에서 ‘열린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구술생애사 인터뷰와는 다른 차원에서도 ‘인터뷰’ 방식의 대화는 오랫동안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음.

유형으로 보면, ①기획의도를 가진 언론 인터뷰, ②책자 또는 다른 유형 등으로 공개하거나 활용할 방식을 정해놓고 하는 인터뷰, ③FGI 혹은 집단인터뷰, ④약식으로 특정주제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주제인터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 구술채록의 절차와 방법

#### 1) 구술채록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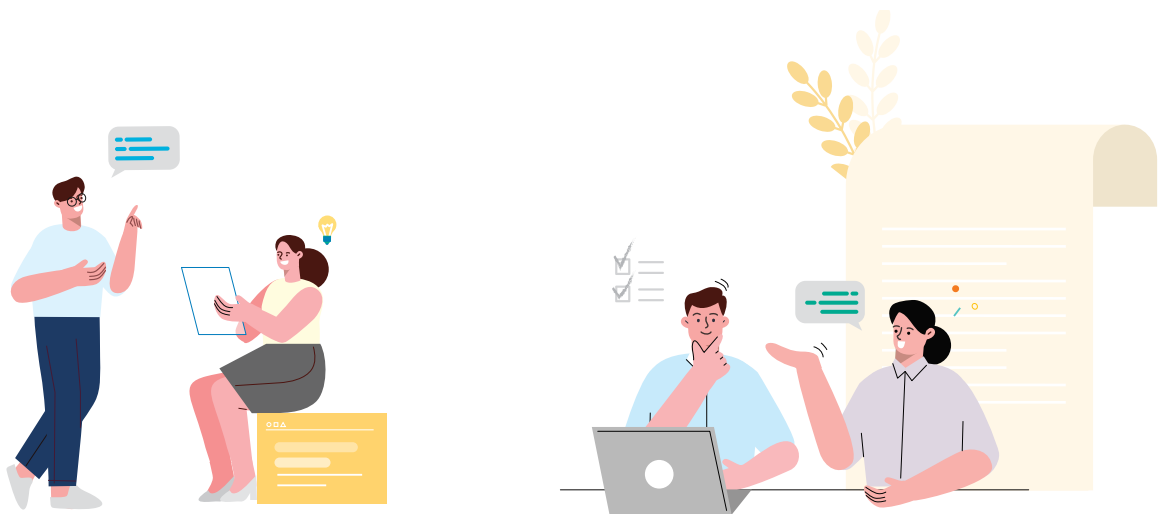
[준비단계] 조사 / 연구 : 기획, 연구, 섭외

[실행단계] 구술/채록 : 면담 전 준비, 구술실행, 구술결과 정리

[마무리단계] 산출물 정리 : 엔코딩 및 녹취문 작성, 동의서, 구술결과물 완성 및 활용

#### 2) 현장에서의 인터뷰 흐름

분위기 조성 : 설명, 인사 => 인터뷰 : 적정 시간, 내용 점검 => 마무리 : 확인, 사후 인사



## 구술 인터뷰의 현장

### 1) 구술생애사 인터뷰 직전 확인 사항

장비 준비 : 사진 및 영상 촬영 여부, 음성 녹음 여부, 테스트, 전원공급, 돌발상황 대처 방안 확보  
인력 준비 : 구술자 확인, 참여자 연락 및 확인(담당업무 및 보안사항 숙지), 동의서 등 서류 준비, 시간 안배, 장소 점검

### 2) 구술생애사 인터뷰 시 유의점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라포(rapport)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초기 접촉에서 마무리까지 예의있게 신뢰감을 형성해야 함.

구술자의 변심 등 인터뷰 과정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터뷰가 성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함.

예를 들어, 인터뷰는 수락하고 녹음도 허락했지만 동영상 촬영은 거부할 경우 당황하거나 촬영을 강권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되 끝내 거부하면 녹음자료만이라도 남기는 방향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음.

최종적으로 구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하거나, 공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구술자의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고 면담자도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함.

## 구술 기록 작성

### 1) 구술생애사 과정에서 만드는 주요 문서자료들

질문지/동의서/면담일지/구술자 및 면담자 신상기록부/상세목록/면담개요 및 면담후기/녹취문 등

### 2) 녹취문은 왜 필요한가?

영상기록을 보완하고, 구술기록의 완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술자가 발화한 음가를 최대한 모두 표현하여 녹취문 작성

문자로 이루어진 녹취문은 구술기록을 서비스할 때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녹음 또는 녹화내용을 장시간 청취하거나 시청하지 않고서도 단시간에 구술시간, 핵심내용(핵심어), 의미 단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됨.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구술성)과 글로 표현하는 것(문자성)은 차이가 있음. 구술내용을 충실하게 녹취문으로 작성한 것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그대로 이용자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자막, 책자 등으로 활용할 때에는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등 윤문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녹취문 작성 지침 마련의 필요성

녹취문 작성 원칙을 마련한다.

구술 전체의 내용전개와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작성한다.

불분명한 경우 들리는 대로 표기하되 (XXX 00:00:00) 형식으로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면담자의 의미 없는 반응을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술자가 대답을 기대하거나 다음 구술에 공백이 있다면 표기한다.

구술자의 동작, 감정 표현, 분위기 등 음성을 대신하거나 녹취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특징적인 상황은 지문으로 기록한다.

외래어의 경우 소리대로 적되 괄호 안에 원어를 달아준다.

방언의 경우 의미 전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투를 살려주고, 의미 전달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준어를 병기한다. 또한 반복되는 표기는 녹취문 전체에 통일을 기한다.

### 성공적인 구술인터뷰를 위하여

#### 원만하고 성과적인 인터뷰를 위한 TIP

면담자는 구술자와 시선을 맞추고 구술자의 표정과 동작에 유의하는 것이 좋음.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쳐다보거나 뒤적거리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잠시 질문을 떠올리지 못해 지체되어도 큰 상관없으니 불안해 하지 말고 구술자와의 대화에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술자의 발언을 독려하는 정도의 무언의 긍정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긍정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음. 물론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논쟁이나 논박을 하는 것도 금물.

구술자가 면담자의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더라도 이내 중단시켜서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보다는 시점을 잘 살피며 대화의 흐름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10월 22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오’지는 만남

**일** 시 : 2020. 10. 22.(목) 14:00~16:00  
**장** 소 : 문래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 마음열기

‘사진 한 장으로 보는 최근 근황 토크’를 했습니다.

도서관 오는 길에 낯선 풍경을 만나 찍은 사진, 오래 된 앨범에서 눈에 띈 어릴 적 사진을 폰으로 찍은 것, 주말에 바람 쐬고 온 곳, 그 곳에서 만난 들꽃, 사무실 의자에 깔아놓은 온열방석, 우리집에 사는 거북이, 글씨가 너무 작아 사진으로 찍어 확대해서 본 라벨지 등 마을기록활동가들이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습니다.

### 함께 알기

#### 1) 마을공동체 인터뷰 후속 활동

마을공동체 여섯 곳을 인터뷰하며 녹음, 녹화, 녹취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의문점을 주로 이야기 나누었고, 구술자의 음성을 위주로 작성하되 어떻게 표기할지 모르겠는 부분은 따로 기록해두고 손동유 원장님과 만나는 날 질의응답을 통해 공부하며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2) 추후 일정

11월 5일 결과공유회, 11월 말 결과보고서 제출 등 영등포구립도서관 2020년 마을기록사업인 ‘오! 생활문화’의 남은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 함께 생각하기

### 1) 지역협의체 추후 활동

2020년 마을공동체 여섯 곳 인터뷰와 결과공유회가 끝난 후, 어떤 활동으로 만남을 지속할지 서로의 희망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단 CoP(학습공동체)를 몇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인터뷰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가로서 소양을 더욱 갖추기 위한 학습, CoP 강사들 다시 모시고 추가 학습, 기록활동을 먼저 시작한 현장탐방 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서울의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공감했습니다.

※ 이후 여러 통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번의 CoP 일정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 11월 12일(목) 15:30~17:30

강사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 원장

- 11월 19일(목) 14:00~16:00

강사 : 이국희, 최연희 마을해설사

- 11월 26일(목) 15:30~17:30

강사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 원장

- 12월 3일(목) 15:30~17:30

강사 : 정말기록당 최연희 상임활동가



11월 5일 결과공유회, 11월 말 결과보고서 제출 등 영등포구립도서관 2020년 마을기록사업인 '오! 생활문화'의 남은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 2) 11월 5일 결과공유회 논의

현재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지역협의체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020년 기록활동에 한번이라도 참여했거나 만났던 분들 모두를 초대하기로 하였고, 연극과 춤 공연이나 사진전 준비되고 있음을 알았고, 기록활동가 2~3분이 소회를 담은 창작시를 낭송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7월 30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CoP : 공동체와 커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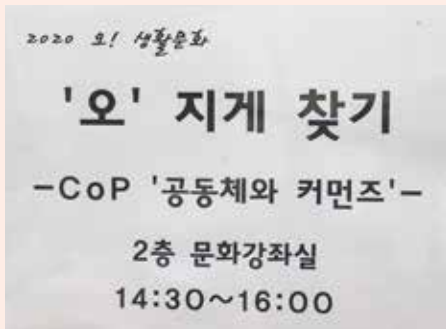
**일 시** : 2020. 7. 30.(목), 14:30~16:30  
**장 소** : 문래정보문화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주 제** : 마을공동체와 커먼즈(Commons(공유재))  
**외부전문가** : 염찬희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키 워 드** : 우리 마을에는 000이 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공동의 것이다?

### 강의내용

1. EBS 지식채널e 공유지의 비극(“비극의 탄생” 4분 10초)
2. 개념: 커먼즈란?(공공재와 공유재의 차이 포함)  
공유지/자원 - 공동자원(공동의 것)- 물적 실체?물성
3. 운동이자 이론으로서의 커먼즈  
참고: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4. 사례로 이해하기  
참고: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5. EBS 지식채널e 공유지의 희극(5분)

### 참고도서

1.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 / 데이비드 볼리어, 갈무리, 2015
2.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 엘리너 오스트롬, 알에이치코리아, 2010



### 강의후기

“우리 마을에는 000이 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공동의 것이다?”라는 물음을 던졌다. 만약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공동의 것이다.”라고 답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공동의 것이 되는 것일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뒤를 잇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중심에는 ‘공동체’와 ‘공유재=커먼즈’가 있다. ‘커먼즈’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시작된 강의는 미국의 생물학자 하던의 「공유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했다.

「제한된 목초지에서 목동 두 명이 가축을 키우고 있다. 목초지에 가축을 많이 내보낼수록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목초지의 넓이와 풀의 양은 제한돼 있기때문에 목동 한 명이 과잉방목으로 이득을 얻으면 다른 한 명은 손해를 봐야 한다. 결국 두 사람은 더 많은 가축을 내보내기 위해,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합리적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공익을 저해하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 역설은 오랫동안 경제학의 통념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통해서 공유는 비극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유화나 국유화처럼 외부에서 강제된 해결책 대신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나서 공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위스 퇴르벨의 사례를 통해서 1517년 작성된 조례 “여름철 초지에 내보낼 수 있는 소의 수는 겨울철에 자신이 사육할 수 있는 소의 수만큼만 허용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으며 네팅의 주장처럼 ‘공동체 소유가 과거로부터 전승된 시대착오적 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공유의 희극은 스위스 퇴르벨 외에 일본, 스페인 등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공유를 관리할 수 있는 ‘공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2020년 8월 13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CoP: 생활문화

**일 시** : 2020. 8. 13.(목), 14:30~16:30  
**장 소** : 문래정보문화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주 제** : 일상의 문화공간, 도서관에서 놀기  
**외부전문가** :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키 워 드** :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 강의내용

#### 1. 잘 노는 정책?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공공의 영역에 도입된 '마을공동체'는 이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음. 229개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곳도 빠짐없이 하고 있음.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국민들이 놀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박근혜 정부 5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민행복'이었음.

그러나 흐한 미래 예측은 '갈등과 혐오', '사회구조 분화', '양극화 극대화', '지구환경 위기 심화'. 가장 힘든 것은 '고독'이 될 것임. 외로움과 싸워야하는 사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관계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잘 놀 것인지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함.

정책의 역할은 문화정책을 중심에 놓고 삶의 사회로 진화, '높의 사회'로 전환을 위해 노동 속도 조절, 놀이 능력 강화, 문화다양성과 포용력 확장을 해야함.

#### 2. 최근의 변화

- 1) 기후변화 :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후위기
- 2) 코로나19의 습격 : 밀집, 집중, 집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 사회체제가 진정한 숨은 확진자
- 3) #미투 :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

#### 3.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

- 1) 잘 사는 나라 : 2017년 세계 GDP 12위 대한민국
- 2)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삶 : 2016년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28위
- 3) 심지어 불안한 삶과 미래 : 14년째 자살율 1위 국가
- 4) 멈추어야 하는 현실 : 공동체, 씬, 여가 등 사는 방식의 변화 필요



#### 4. 사는 방식 바꾸기

- 1) 나에 대한 사랑 :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을까?
- 2) 다른 사람의 다양성 이해 :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 열어야
- 3) 협력적 삶과 공동체 : 함께 사는 방식에 협력해야

#### 5. 변화하는 문화, 행동하는 예술 : 패러다임의 변화



#### 강의후기

2020년 두 번째 CoP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컨설팅 등으로 도움주고 계시는 최혜자 선생님 강연이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고 살아야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10년 후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부끄럽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10년 뒤 도서관은 2020년 도서관을 어떻게 돌아보게 될까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도서관도 아직까지는 '노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에서 놀기'를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놀아본 적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갈등해결에 미숙한 우리는 서로 빈정 상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오히려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독은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관계 속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은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일상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활동으로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문화는 나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살피고 발견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양성에 열려있는 도서관 생활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도서관에서 놀아볼까요?

## 2020년 9월 24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CoP: 영등포의 이해

<b>일</b>	<b>시</b> : 2020년 9월 24일(목), 14:00~16:00
<b>장</b>	<b>소</b> : 신길역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문화다리 - 방학곶지부군당 - 영등포공원 - 카페봄봄
<b>주</b>	<b>제</b> : 영등포의 이해
<b>강</b>	<b>사</b> : 마을해설사 이국희, 마을해설사 최연희

도서관 밖으로 나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서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마을기록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영등포 마을해설사들에게 '영등포' 이야기를 듣는 날입니다. 신길역 1번출구 앞 광장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기록활동가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는 산이 없고 강으로 둘러싸여 땅이 낮고 평평한 편이며 물이 많은 고장입니다. 영등'포'라는 이름이 말하듯 한양으로 가는 배가 드나들던 나루터가 많은 포구마을이었습니다.

신길역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보다리 위에 서니 아래로 '귀신바위'가 보입니다. 오래 전에는 샛강도 물이 많아 꽤 깊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 근처에서 놀다 풍경에 취해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 목숨을 가져가는 바위라고 '귀신바위'라 불렀답니다.







신길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도보다리 이름은 ‘문화다리’로 곧게 뻗은 보통의 다리와 다르게 셋강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겼습니다.

다리 중간에 하늘로 높이 솟은 두 개의 조형물은 셋강에 자주 놀러왔던 학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경치가 멋진 이곳에 학이 자주 놀러와서 예전에는 방학동(학이 방문하는 동네)이라 불렀답니다.

여의도셋강생태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사람의 휴식공간이 아닌 자연이 주인인 공원입니다. 동식물의 생태계에 사람이 인위적 개입을 하지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신길역 쪽으로 와서 길을 건너 주택가로 내려갔습니다. 골목골목을 지나 ‘방학곶지부군당’이라고 써있는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니 멋진 벽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에 놀랍게도 마을의 제사를 지내는 당집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시대 큰 물난리 때 한강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윤정승을 잉어가 구해줘서 살아나 그 때부터 당집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지금도 일년에 3번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된 문화를 계승하며 공동체를 지켜오는 마을 사람들의 착하고 소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방학곶지부군당 안에 모셔냈다는 부군할아버지, 부군할머니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마음 속 소원 하나씩 전해드리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사람의 상여가 땅에 붙어 지나가지 못했다고 전해오는 밤고지고개를 지나 기차소리가 들리는 영등포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CoP: 정릉 마을 기록 이야기

- 일 시** : 2020.10.15.(목), 16:00~18:00  
**장 소** : 문래정보문화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주 제** : 정릉 마을기록 이야기  
**외부전문가** : 정말기록당 상임활동가 최연희  
**키 워 드** : 모든 사람은 세상에 들려줄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

**“기록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시간이 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다.”**

- 제임스 오틀, 리처드 콕스 -

### 마을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 왜 기록할 것인가?
-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 누가/누구를 기록할 것인가?
-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 어떻게 공개, 공유, 활용할 것인가?



### 마을기록의 키워드

- 수다 : 모든 것의 시작
- 마법 :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 징검다리 : 건너가다 보면 생기는 길
- 삽질 :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 정릉 마을아카이브 주민네트워크 '정말기록당'

- 취지 : 정릉의 마을기록 기준을 주민들이 만들기, 정릉을 기록하기
- 참여 : 정릉마을, 정릉마을기록사업단, 우리동네스토리 코어스, 정릉복지관, 청수도서관, 정릉도서관, 성북문화재단,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마을기록가 개인 등
- 기간 : 2018년 3월 ~ 현재
- 활동 : 주민강좌 3회, 관계자 좌담회 6회, 정릉연표 만들기, 마을아카이브강좌 8강 진행, 마을기록 전시회 5회 개최, 마을투어 진행, 박물관/기록전시관 견학, 기록책자 발행 등

### 도서관과 마을기록 상상하기

- 아카이브 배움터 : 스터디, 도서 신청, 카드뉴스 발행
- 이벤트 : 이달의 한 구절, 진품명품쇼, 그림/글 공모
- 시민기록 아카이브 : 주제별 시민 소장기록 공모, 채록
- 매월 새로 채워지는 전시공간으로 시민이 꾸미기
- 수집된 자료로 마을교과서, 마을기록집 발간
- 온-오프 아카이브 구축,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 마을기록 주민동아리 양성, 아카이브 운영에 참여 보장

## 2020년 10월 11~21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오지게찾기: 마을공동체

여름부터 어떻게 마을기록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 CoP(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10월에는 6곳의 지역공동체 또는 오랜 기간 영등포에서 일터를 일구신 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였습니다.

### 1. 대림동 사람들

**일 시** : 2020. 10. 11.(일)

**인터뷰이** : 대림동사람들 고안수 대표님

**인터뷰어** : 이국희, 황소연, 이길원, 이윤진



## 2.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자원봉사모임

일 시 : 2020. 10. 12.(월)

인터뷰이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자원봉사자 추종순 선생님

인터뷰어 : 이연옥, 이윤재, 윤이나, 이길원, 이윤진



## 3. 양평동교회

일 시 : 2020. 10. 14.(수)

인터뷰이 : 양평동교회 김경우 담임목사님

인터뷰어 : 최연희, 황소연, 이길원, 이윤진



#### 4. 살레시오수도회

일 시 : 2020. 10. 16.(금)

인터뷰이 : 살레시오수도회 윤석렬(필립보) 교장수사님, 임충신(마리노)수사님, 노일중(아오스당) 교감수사님

인터뷰어 : 권오희, 홍정희, 안주연, 이길원, 정노천



#### 5. 영등포산업선교회

일 시 : 2020. 10. 16.(금)

인터뷰이 :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목사님

인터뷰어 : 강정숙, 이경희, 이미숙, 이윤진



## 6. 삼원농장

일 시 : 2020. 10. 21.(수)

인터뷰이 : 삼원농장 최완규 사장님

인터뷰어 : 정노천, 정선이, 김인용, 이길원, 이윤진



## 2020년 11월 5일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2차 자문회의

**일** 시 : 2020. 11. 05.(목), 14:00~16:00  
**장** 소 : 문래도서관 5층 평생학습실

### 영등포구립도서관 '오! 생활문화' 2020 사업보고

- 자문회의 2회, 지역협의체 9회, CoP 4회, 마을공동체 인터뷰 6회 진행.
- 결과공유회 :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문래도서관 2층에서 진행 예정.
- 지역협의체 마을기록활동가 모임 지속, CoP 4회 추가 일정 확정됨.
- '오! 생활문화, 마이공' 관련 자료 아카이브 및 디지털 자료화 계획 중.

### 자문위원 의견 개선

- 1차 자문회의에서 예상되었던 기록대상과 실제 진행된 기록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문위원, 기록전문가, 마을기록활동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터뷰 대상지 6곳 선정.
-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때, 홈페이지에 활동내용이 계속 올라와서 다소 놀랐고 고생 많았을 것 같음.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색다른 접근이라 생각됨.
-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기록대상을 정해나간 과정이 훌륭했음. 주민들의 기록 활동과 기록된 내용이 웹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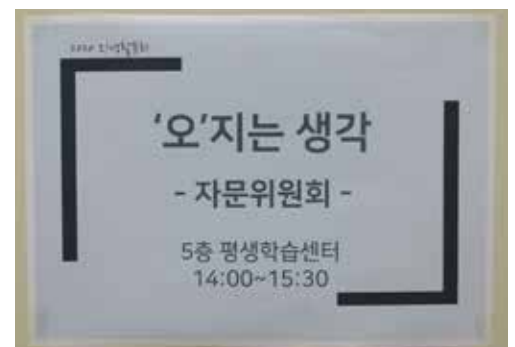




- 기록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동체도 중요함.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주요사업이 되면 좋겠음.
- 이번에 인터뷰 한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에 또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음. 한개 동만 조사해도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 동을 조사하면 정말 많은 공동체가 있을 것.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대단할지 생각이 됨.
-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공동체 활동도 많이 바뀜. 내년에는 코로나로 바뀐 일상을 연령대를 다양화해서 인터뷰해도 좋을 것 같음.
- 코로나로 인해 공공기관은 문을 닫았지만 사적공간은 문을 닫지않음.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9월부터 소규모로 24곳 77개 강좌를 옴. 사적공간이 어떻게 공적기능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만나 어떤 씨앗을 만들고 있는지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을 듯.
-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열고 모임을 하니 움직임이 어려웠던 분들이 참여하기도 함. 코로나로 인해 이탈한 주민도 있지만 새로 발견되는 주민도 있음.
-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함. 공동체를 다른 시선에서 발견할 수 있기도 함. 활동의 변화를 찾아내고 기록해서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듯.
- 도서관의 기능이 온라인화 될 수 있을까? 주민센터 문 연 뒤 공무원 잡고 온 주민은 없지만, 도서관 문 연 뒤 사서 붙잡고 온 주민은 있음.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그런 느낌. 영등포구립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기능을 찾아야 함.
-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되게 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함. 1년 사업계획도 같이 의논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하고 같이 짜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주체성이 높아짐.



- 도서관 홈페이지 한쪽에 아카이브와 마을공동체 정보를 모아놓을 계획임. 검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좋은 활동을 정보화시키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음.
- 위키피디아처럼 집단지성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음. 캐나다에도 학습정보플랫폼이 있음.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 내용이 바뀌니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구조가 중요함.
- 누구에게 필요한 기록인가? 영등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야기와 마을에서 그냥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을이야기의 관점 차이, 필요도 차이를 생각해보고 한해 한해 컨셉을 정하고 가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떡방 이야기 모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관적인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음. 생활문화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가닿길 바램.
-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미가 더 중요할 듯하고 기록함으로 의미를 찾고 관계성을 갖고 미래로 가는 씨앗이 되길. 애써서 만든 자료가 누군가에게 의미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은 3년이라 내년에도 계속 될 것임. 주민들은 자조모임을 만들고, 도서관은 계기를 만들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찾아가는 중.



## 지역협의체와 도서관 생활기록단 구성

정 노 천



“참 예쁘네요 갖고 싶어요”

광목 보자기에 쓴 내용물이 뭘까?

궁금증보다 일일이 쓴 보자기의 모습이 꽃송이 같아 더 내 눈길을 유혹했다.

그 정성과 모양이 아까워서 선뜻 풀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다.

오래 안 풀어보면 내용물이 녹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 몇 차례 사진을 찍고서야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다.

오래전에 놓쳐버린 미각을 소환하는 경단과 다과

힐링이 되고 즐거움을 물씬 안겨준 유년의 군것질거리.

여기서도 아카이브의 씨앗이 싹튼다.

예쁘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모양을 접고 포장한 행복(?)보자기의 정성이 흠씬 묻어났다.

내용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준비한 그 정성에 고마움을 전한다.

7월 3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지역협의체 모임에는 지난달 7일 첫 모임보다 3배나 늘어난 인원들이 모였다. 지난 7월 7일 생활문화기록 협의체 구성 건으로 2시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5층에서 만남을 가졌었다.

그런 다음 7월 30일 오후 1시부터 문래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만난 모임에서 마을공동체와 커먼즈 관련 논의가 개진됐다.

사각 탁에 둘러앉은 20여명의 인원들이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지역협의체모임을 본격 출범시킨 셈이다. 이미숙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 2부 행사가 진행됐다. 1부 행사는 학습공동체 역할과 올해 생활문화 기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마을의 공동체를 기록하는데 공동체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기록하고 '마이공(마을이야기를 공유합니다)'을 개설해 홈페이지에 올릴 사업진행 과정 등에 대한 영등포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이연주 사서의 설명이 있었다.

우리가 속한 사랑스런 영등포의 문화기록과 생활 기록을 탐구하고 학습하면서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사업을 펼쳐가고자 하는데 지역 협의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영등포관내 도서관의 사서 및 전문가 등 6명이 참가하고 마을기록단이 함께 참가한 지역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매주 올린 자료를 한 달에 한 번 다시 편집해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서 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는 마을을 사랑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이 중심이었고 올해는 사서들과 함께 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하고 올해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는 1차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영등포 지역 도서관 사서 및 전문가들과 지난해 도서관에서 아카이브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합쳐 지역공동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시킨 것이다. 영등포문화재단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함께 하고 싶어 마을공동체 생활문화 기록사업 및 마을기록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발족했다.

이어 각자 소개로 들어갔다.

초두효과의 만족감을 채워주면서 협의체 회원은 신길동 예술공동체 마루 소속의 이길원 님의 마음을 여는 자기소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감쪽한 놀이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칫 경직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공통된 형식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희희낙락하면서 자신의 성향과 대략적인 인사를 돌아가며 마쳤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로 이름, 사는 곳, 하는 일 그리고 오감을 말하는 코. 입, 눈, 귀, 손가락의 5개 그림이 그려진 문항에 따라 자신의 오감을 피력하며 자기소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김금란 선생부터 시작된 전체 상견례가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렇게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2부 학습공동체(COP) 행사로 이어졌다.

## 지역협의체 소감문

강 명 속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오’지는 만남 지역협의체 모임이 문래정보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3번째(8월 13일) 맞이하는 모임으로 단단한 팀웍과 함께 정겨운 담화와 학습공동체로 발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이길원님(예술공동체 마루)의 다채롭고 센스있는 이벤트는 분위기를 상쾌시키고 이어지는 강의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시작된 “마을작가 갤러리”는 반으로 접은 B4용지 상단 모서리에 자신의 표식을 하고 왼쪽여백에 자신의 얼굴모양을 상세히 기술하여 이를 토대로 다른 분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벽면에 전시된 그림 갤러리에 각양각색의 얼굴그림이 등장하였고 색다른 감성과 터치, 재치와 위트있는 문장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굴에 대한 묘사와 그림의 조화, 자신의 얼굴을 찾는 재미까지 주어지니 즐거움이 배가된 기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장의 표현과 그림을 통해 상대방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친근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회원 간 어색함과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카이빙을 위한 영등포 마을공동체 리스트 설명은 인생의 삶과 역정 속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소중한 설레임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의 COP는 “생활문화”라는 주제로 문화디자인자리 대표이신 최혜자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잘 노는 정책은 무엇인지, 최근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사는 방식 바꾸기 등의 내용을 담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의 압권은 단연 3초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순서였습니다. 실제로는 2초였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빌딩과 배 다리의 그림이 보여지다 사라졌습니다. 머릿 속의 기억을 더듬고 반추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재빠르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짧은 찰나의 시간에서 다양하고 특이한 그림들이 그려졌고 관점과 각도, 사고력과 판단력 눈높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나와 다른 방식을 인정 수용하는 태도에 공감하며 경청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변화의 공간속에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고 협력함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중한 만남을 통해 ‘오’지게 생각하고 만나고 찾고 기록하는 특별함으로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 지역 협의체 모임

이 연 옥



‘오’지는 생활문화의 마을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선 발걸음은 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책상위에 흰 종이와 색연필이 놓여졌다. ‘무슨 활동을 하려는 걸까’ 생각하며 그림을 못 그리는 나는 속으로 적지 않게 긴장이 되었다. 오늘의 마음열기 프로그램의 제목은 마을작가 갤러리라며 이진원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짧은 글 하나를 보여준다. “몸둥이에 나귀의 꼬리요. 낙타무릎에 범의 발굽이며 털은 짧고 잿빛이며 모양은 어질고 소리는 처량하며, 귀는 드리워진 구름장 같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어금니의 크기가 2위, 길이는 1장 여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코끼리를 어찌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자세하게 묘사된 코끼리처럼 본인의 얼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난 후 수합했다. 잠시 후에 내 얼굴에 대한 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잘 설명해 놓은 종이가 한 장 놓여졌다. “얼굴 모양은 달걀보다 큰 오리알 모양이고 그 안에 이마가 삼분의 1, 코가 3분의 1, 코에서부터 턱이 3분의 1, 눈은 전형적인 동양여인의 눈매다. 코는 오뎅하다. 그 코에는 안경이 얹혀 있다. 입술은 보통보다는 크게 그러나 하마보다는 작게.” 종이에 묘사된 얼굴은 나뭇 비늘까지 적용해 잘 묘사해 놓았는데도 마을작가인 나는 그림으로 다 표현해 내지를 못한다. 이번 마음 열기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란다. 이

활동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알아듣는지 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말하고 들음이 표현된 마을작가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 보았다. 얼마나 잘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는지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을 수 훌륭한 시간이었다. 마음열기가 끝난 후, 다음 주에는 마을 공동체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지역협의체에서 기록하고 인터뷰지를 어떻게 만들지 손동유 원장님을 모시고 논의 할 예정이라고 이연주 사서의 안내를 받는다.

작년에 만났던 손동유 원장님을 만날 수 있다니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었다. 이윤진 사서가 마을 공동체 리스트를 구분해서 그 곳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지역카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단체, 종교기관, 예술공동체, 특별한 마을 사람들, 상인들, 오래 사신 분 들이었다. 영등포에 오륙십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발적인 모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오! 생활문화” 모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각 단체나 오래 사신 분 들을 통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지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영등포를 글이나 영상, 사진, 구술 등을 긴 안목을 가지고 기록을 해봐야겠다. 기록이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중요하다고 했기에.



## CoP 1차 「공동체와 커먼즈」

홍정희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염찬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전통적인 시장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갖는 본질적 한계가 갈수록 분명해지면서 공유(재)의 힘과 사회적 장점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마을에는 ○○○이 있다. 江, 川, 지하철,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노인정, 경로당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나도 가도 되는지, 점유해도 되는가라는 고민거리,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마을 사람들 공동의 것이고, 지방의 미술관도 무료, 유료라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유(재)는 자치, 자원관리, 그리고 잘 살기를 위한 실질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 속 어업자원, 산속 산림자원, 지하수, 하천 등은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대기의 질)와 같은 많은 것들이 공유재로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공유재들이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역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닌, 하지만 모두가 주인일 수도 있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어 오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관리되어 지기도 한다.

공유재를 공부하면서 “비극”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공유지의 비극은 집합행동의 불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던지는 경제학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를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기도 한 이 책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판한다. 가난했지만 대학에 가고 싶었던 소녀, 여자는 수학을 배울 수 없다는 오스트롬은 공유지에도 “희극”은 있다. 라고 보았다. 오스트롬은

자신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평소에 몰랐던 공유지에 대해 한 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공유지를 생각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공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해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공부하면서 뜻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면서, 이 강의를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도서관과 우리, 쉽 타기로 하다



이 국 희

‘오’지는 만남, CoP 2번 째 시간에는 [생활문화]를 주제로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조용히 책을 읽거나 책을 빌리러 가는 그곳, 도서관에서 논다는 말이 어울리는가? 선뜻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는 어떤 정책적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자. 정부는 국민들이 놀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패러다임이 아니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오래 전 부터 읽은 것이다.



국가비전 2045,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에는 갈등과 혐오, 양극화는 극대화 되고, 사회구조가 분화되며 지구환경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의 일상 보편화로 인해 노동의 형태가 변할 것이므로, 노동 중심사회에서 “농의 사회”로 전환하는 동안 노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고독과 싸워야 할 수도 있는데, 외로움과 싸우기 위한 생존방식의 하나로 어떻게 놀 것인지 찾아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정책이 중심에 서서 양극화와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의 사회에서 삶의 사회로 진화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의 다양성이 더욱 확장되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돌봄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생활 속에 문화는 일상이 되고 문화를 누릴 권리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전에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인된 바이기도 하다. 이제는 외부에서 답을 찾을 것이

## 변화에 대해 ‘네가 먼저’가 아닌, ‘함께 변화’할 마음으로 간다면 도서관은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

아니라 우리나라 현장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기후위기), 코로나19, 미투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는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왔고, 코로나19로 인해 밀집, 집중, 집적을 강요한 사회체제에 회의를 가져왔다. 미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해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새사회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미투가 가져온 변화를 나의 일상에서도 체감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폭력대화나 성교육 등 특정 강연이나 세미나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을 엄마들 모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애정표현인지 폭력인지 구분하기 애매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여전히 모호한 젠더 감수성에 대한 고민, 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차 한 잔 마시는 가벼운 수다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광복 이래 줄곧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아야한다.”는 세대를 통틀어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고 받아왔던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

었는데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먼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나를 응원할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나를 넘어 우리가 되면 협력적 삶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관계 속에 살고 있을 때이다.

도서관이 우리 일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용 ‘객’이었던 우리를 도서관의 일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조용한’으로 인식되었던, ‘논다’와는 거리감이 있게 여겨졌던 도서관이 ‘놀자’고 한다. 선진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관과 민의 조합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도서관과 우리가 찾아야 한다. 막막하지만 또 희망적이기도 하다. 도서관과 우리가 연습해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놓고, 서로에 대한 설렘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변화에 대해 ‘네가 먼저’가 아닌, ‘함께 변화’할 마음으로 간다면 도서관은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

## 다시 알아보는 우리마을 이야기 1

정 노 천

### 영등포 부군당

당산동, 법학곶이, 상산당, 신길동

영등포구 관내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영등포구가 분구가 되면서 산이 없고 강에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는 행정구역이 됐다. 한강이 역사적인 강인만큼 한강을 부르는 명칭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현재의 한강 명칭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명칭이 아니다. 현재 서울 은평구 구기동 구기터널 위쪽에 위치한 신라 진흥왕 순수비의 비문에 보면 한강이 아니라 ‘남천(南川)’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한강을 부르는 명칭은 한강이 지나는 구역의 지명을 따라 각 구간을 나누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강 상류인 춘천 이상 지역에 흐르는 강을 소양강, 평창을 지나는 물길은 평창강, 여주를 흐르는 물길은 여강, 강동구에 위치한 광나루에서 잠실까지는 ‘한강’, 잠실에서 용산 앞으로 흐르면 ‘용산강’, 용산에서 마포 앞으로 흐르면 ‘서강’, 그리고 마포에서 한강 하류인 김포와 통진 일대를 흐르는 강을 ‘조강(祖江)’ 또는 ‘조하’라고 불렀다.

- 그러므로 조선시대 ‘한강’이라는 명칭은 원래 한강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남산을 끼고 도는 부분의 강, 즉 지금의 한남대교 자리 한강진 주변의 강을 일컬었다. 한강 전체의 물길 중에서도 서울

을 끼고 도는 부분을 '경강(京江)'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강'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강'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됐었다. '경강'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구역에 포함됐던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를 그 경계로 하고 있다. 그 안에는 '한강', '용산강', '서강'이 포함되어 '경강'을 '삼강(三江)'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강이 주는 콘텐츠가 참 많다. 영등포를 끼고 흐르는 강줄기는 '용산강'과 '조강' 사이의 '서강' 부분이다.

'서강' 중간에 위치한 섬이 3개가 있다.

여의도와 선유도, 밤섬 등 크게 3개의 섬이 서강 중간에 포진해 있어 오랜 세월 강은 온갖 사연들을 끌어안고 있다. 강은 흐르면서 이쪽과 저쪽을 차단시킨다. 요즘은 다리가 많이 생겨 쉽게 건너지만 과거엔 배로 건너다녀야 했으므로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했다. 그 나루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만남과 이별의 정한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업을 물에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다. 배로 고기를 잡거나 짐을 이동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항상 위험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은 불안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당(都堂,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었다. 영등포는 지리적으로 볼 때 한강을 끼고 있어 물과 관련이 많아 물로 나간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비는 도당들이 많았다. 현재에도 영등포 지역에 4곳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까지 제의 행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민족의 전승문화와 물난리로 일어난 이들의 한과 보은결초 등 마을의 번영과 안일, 마을 화합의 행사로 전승돼 왔는데 현재 자꾸 이런 행사들이 사라져 간다는 게 안타깝다고 한 관계자는 심정을 토로했다.

주로 영등포는 부군당(府君堂, 과거 각 관청에 설치하여 신을 모시는 곳을 이르던 말)이라 부르는데 민간신앙의 대상물인 여러 신들을 모셔 놓은 신당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서만 불리던 당의 명칭이다. 부군당은 조선전기부터 한양의 각 관아에 별도의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관아의 수호신을 모신 사당으로 부군당(附君堂) 또는 부근당(付根堂)이라고도 했다. 서울에서는 한강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민속제당은 각각의 유래를 지니고 있는데, 절대적인 위력을 가진 신이나 조상들을 모셔서 인간의 불운을 해소하려고 하는 동시에 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며 그들이 해곳이를 하는 것을 막고 원을 달래주는 영혼의 위령제 형태도 많다.

영등포는 강을 끼고 있어서 도당이 많았고 이곳에서 특별한 날에는 굿판을 벌리고 풍물, 줄타기 등 민속놀이가 행해지고 잔치가 며칠간 열리기도 한 마을 공동체의 현상이었다고 전한다. 요즘 말로 마을 화합과 무사안녕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준 치유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군당(府君堂)은 각 관아의 관리 하에 신을 모시던 곳을 말한다. 부군당과 당제는 촌락 국가시대 이래로 자연적 단합을 다짐하던 오래된 동제 전통을 지닌 서울 나름의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풍속에 아문(衙門)에는 기도하고 제사지낸 곳을 두었는데, 이것을 부군이라 한다. 새로 관원이 부임하면 반드시 여기에 제사를 지냈는데,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수광(1569-1628)이 지은 <지봉유설>에서 부군당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군당(府君堂)은 조선시대 경아전이나 지방 관아 인근에 설치된 제당 또는 현재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제당의 명칭을 일컫는다. 부군당의 건립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부군당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종실록(中宗實錄)> 1511년(중종 6) 3월 29일 기묘(卯)에 ‘양현고 안에 부근당(付根堂)이 있다. 부근(付根)은 관부에서 기축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나라의 풍속이다(養賢庫內有付根堂 付根者 官府設祠祝 國俗也)’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군당 건립의 풍속이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당에는 수차에 걸친 수리 개축시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연도가 기록된 현판이 여러 개 보관돼 있어 공동생활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써 구실을 하고 있다

관청에서도 민속신앙을 따랐고, 동네의 민속신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한강변에서 생존을 영위하던 주민들은 어로와 관련되어 안전을 기원하는 부군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옛날부터 동제와 산제를 지내던 부군당이 있었다. 과거에는 더 많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영등포에는 4개의 도당(都堂)이 남아있다. 영등포 민속제당으로는 상산전과 당산역 동쪽편 삼성아파트 앞쪽의 부군당, 영등포여고 건너편의 방학곳지 부군당, 도림초 후문 옆 신길3동 도당이 있는데 전통적인 가치가 높다.

## 방학곳지 부군당

---

영등포여고 북쪽 건너편 신길2동에 있다.

도림동 일대는 인천으로 가는 길목이라 주막거리가 발전했고, 세태를 반영하는 민요인 ‘창부타령’ 등의 경기잡가가 널리 유행된 곳으로 전한다. 영등포 여자중학교 정문 옆 고개를 밤고지 고개라 하는데 이는 방학고지 부근에 있다 하여 방학고지 고개로 불리다가 음이 변하여 밤고지 고개가 된 것 같

다. 아마 이런 음운변화로 초창기 ‘밤학곳이 부군당’으로 불렸다가 지금은 ‘방학곳이 부군당’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방학곳이 부군당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마을의 재앙을 쫓고 기원하기 위해 당집을 지었다고 하나 부군당비에는 1450년 4월 8일 건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의 비는 1974년 4월 15일 건립한 것이 영등포역사로 기록돼 있다. 신길동 북단 올림픽대로변 여의도 셋강 가에 있는 큰 바위 아래로 강물이 흘렀는데 수심이 깊어 이곳에서 놀던 사람들이 주위 풍경에 도취되어 실수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 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귀신바위라고 불렸다. 또 바위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1790년대 정조 때 왕비가 이곳을 지나다 주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잠시 쉬어갔던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어 마을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모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여의도 개발로 절반쯤 묻힌 바위와 느티나무가 서 있다.

부군당은 벽돌조의 두칸 한옥 기와집으로 정면 두 문에 태극무늬를 그렸다.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를 비롯하여 신상(神像)이 열하나였으나 청마장군 신상이 몇 해 전에 도난당해 지금은 신상(神像) 열이 모셔져 있다. 지금도 1년에 세 번씩 제사를 지낸다. 음력 4월 1일과 7월 1일은 소지(燒紙)만 올리는 정도로 간단하게 지내지만 시월상달(10월 1일)에는 대제(大祭)를 올린다. 제사일은 9월 25일 대동계(大同契)에서 상달 초순에 택일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동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제사비용은 주민들 가운데 동신(洞神)을 받드는 주민들이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데, 가구당 쌀 1되씩과 성금을 낸다고 전한다.



## '잉어 이야기' 설화

이 부군당은 6.25전쟁 때 대부분 파손됐던 것을 전쟁 후 주민들의 힘으로 보수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윤정승이 물난리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을 때 잉어가 나타나 등에 태워서 방아고지 기슭의 모래밭에 내려주어 살아났다고 하여 윤정승이 당을 지어 제를 지냈다고 한다.

방학고지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먼저 예전에 한강 가, 지금의 귀신바위 근처에 방학정(放鶴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해서 방학고지라 불렀다. 또 이 지역의 옛 지명인 상방하곤(上方下串)이 줄어서 방학고지가 됐다고도 한다.

당시 한강 어귀에 있던 이 마을에 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언덕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경치가 빼어나므로 '학이 놀다 가는 곳'이라 하여 방학동(放鶴洞)이라 하다가 방학고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예전 도성으로 실어 나르는 곡식을 뿜는 방앗간이 이곳에 있었으므로 방아고지가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방학곳이나루는 노량진(鷺梁津)과 양화도(楊花渡) 두 큰 나루 사이에 위치했다. 지금의 신길동에서 배를 띄우면 셋강을 지나 강 건너편 마포나루로 건너가는 나루터였다.

당시 한강변은 모래밭이었는데 이곳 신길역 부근은 여의도를 가운데 둔 셋강이 흐르는 곳이었고 절벽이 높고 물이 많이 흐르던 곳이었다. 경관이 좋았으나 위험한 강이었다. 오죽했으면 지금도 전설로 흘러오는 이야기 중에는 귀신바위와 느티나무 전설이 있을 정도다.

부군당은 유적지로 의미도 갖지만 설화가 있어 더욱 우리들의 삶에 밀착해졌다. 부군당의 설립 자체가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갖게 되어 우리 선조들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윤정승의 설화 역시 결초보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연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영등포지역의 공연으로 오르기도 했다. 잉어이야기는 영등포의 방학곳이 부군당 설화와 윤정승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사적지를 인문적인 특징들로 녹여 이를 공연콘텐츠로 영등포연희단에서 공연했다.



## 다시 알아보는 우리마을 이야기 2

정 노 천

### 신기리 도당

신기리 도당은 신길3동 도림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다.

도당은 6·25전쟁 때 소실됐다가 1954년에 중건됐다. 도로 확장공사로 도당의 터가 반으로 줄었지만 현재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도당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태극무늬가 있는 솥을대문이 있고 그 안에 6.6㎡ 정도의 한 칸 한옥으로 된 신기리도당이다.

이 당집은 벽돌조 한식 기와로 당 내부는 무렵이 쳐있다. 도당 안에는 정면에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린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천정 오른쪽에는 ‘응천상지삼광비민간제오복’이라 쓰여 있다. 신상은 산신으로 왼쪽에 도당할아버지와 오른쪽에 할머니 두 분의 화상을 모셔 놓았다. 탕화 밑에 탁자로 된 제단과 제구가 놓여 있다. 이 탕화의 형상은 이태원부군당의 무신도와 형태가 닮아 동일시기에 동일 화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현재의 신상은 몇 해 전에 도난당해 다시 그려 봉안한 것이다.

옛날 이 마을 신길리에는 들 가운데 십자형의 강이 있고 그 강으로 인천, 김포, 한강을 경유하며 어선이 많이 왕래했다. 배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부둣가 언덕의 고목인 굴참나무를 성황당으로 삼아 제의를 행해왔다고 한다. 또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 도당을 지어 산신을 모신 것은 약 430여 년



전부터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당집은 1949년에 건립된 것이라고 상량문에 기록돼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의로 과거의 행정구역명은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였다. 이것이 변화하여 신기리라 불리면서 신기리도당제라고 부른다. 신기리도당제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고구려 장수왕 때 큰 폭동이 발생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지자 어선의 무사 운항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포구 언덕 위의 소나무에 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1592년 후 마을 어귀에 도당을 짓고 매년 정월, 칠월, 시월에 제를 올렸다. 이곳에 도당을 세운 내력은 1591년 소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그 1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신기리 주민들은 소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도당을 세우고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 마을의 편안과 국태민안을 위해 해마다 세 차례에 걸쳐 도당제를 올렸다.

신기리도당제는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흘날에 유교식으로 거행된다. 과거에는 정월 초사흘날과 칠월칠석날에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연 1회로 바뀌었다. 대한암흑기 전까지는 무당이 굿을 주재했다고 하지만 6·25전쟁 이후 유교식 제의만 거행한다. 모든 치성을 주관하는 이는 당주로,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했다. 그러나 토착민들이 이주해 나가면서 당주를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신기향우회에서 1980년대 부터 당주를 선출해 소임을 맡고 있다.

제의는 당주 집에서 시작된다. 제물을 도당으로 옮기기 전에 간단히 당주 집에서 정성을 들인다. 삼색 실과와 떡으로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는 정도이다. 도당으로 모든 제물을 옮기고 역시 신기향우회에서 선출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제의를 거행한다. 제물은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상차림과 동일하다. 제의방식도 일반적인 제사 격식을 따른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당 밖에 나와 축문을 사르고 음복을 한다.



신기리도당제는 마을공동제의이지만 현재는 신기향우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신기향우회는 신기리 출신의 40대 이상 남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달 10일 정기모임을 갖고 도당제를 주관한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이 오로지 향우회원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의 전통마을이 붕괴되면서 전통 공동제의가 변모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우회,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제의를 전승하는 모습이 신기리도당제에 그대로 보인다.

신기리도당제는 도시 지역의 변모된 공동제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든 타지로 이주했던 같은 마을을 성장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공동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일종의 친목회 유지에 도당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향토문화 유산 하나 변변히 남아 있거나 보존되어 있지 않은 영등포에 그나마 향토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 그것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도림초등학교 후문 담장에 붙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체험과 향토유산에 대한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이곳이 부끄럽게도 오랜 기간 방치되고,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신기리향우회가 주관한 이 도당제에는 영등포 관내 관공서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의 장이다.

‘이는 종교적인 행사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안녕과 우리의 시원문화적인 사료로 봐 주길 바란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고 주민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 당산동 부군당

당산동 6가 삼성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당산동부군당은 음력 10월 1일에 제를 올린다.

이 당은 1925년 을축년 한강 대홍수 때 마을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당집을 지었다고 하나, 그 이전부터 있던 당을 새로 지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부군당에는 부군당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문에는 1450년 4월 8일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후 1950년 4월에 건립된 도당 안에는 9위의 신을 그려 모셔져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대동할아버지, 대감님, 장군님, 부군할아버지, 산신님, 칠성님, 삼불제석님, 대신할머니, 각씨님 등이다. 현재의 비는 1974년 4월 15일에 건립된 것



으로 기록돼 있다. 마을의 안녕과 가정 및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당제는 원래 7월 1일과 10월 1일로 일년에 두 번 정도 올렸다.

이 부군당의 유래는 원래 현 위치에서 우측으로 30m쯤에 큰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놓고 조선조 초기부터 당제를 지내던 것을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많은 인명이 이곳에 피난하여 무사했다. 그 덕으로 마을의 28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집을 지었다고 전한다.

현재의 건물은 제물청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1층 건물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당이 지어져 있다. 원래 7신위는 현재의 아홉 신격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도 제를 같이 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지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유교식 제의 후에 당굿이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은 원래 당산(堂山)이 있었던 곳이라서 당산동이라는 동명을 얻었다. 당산은 마을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모시는 당집이 있는 산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도시화에 밀려 조금씩 자리를 옮겼는데, 그나마 인근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산을 깎는 바람에 2층집 옥상에다 당집을 지은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당산동 부군당은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로부터 약 100m 위쪽에 있었다. 대지 약 15평, 건평 8평 정도의 단층 기와집으로 된 부군당은 애초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만 지역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앞쪽 전망이 막혀 버렸다.

그리고 1925년, 을축년 한강의 대홍수 때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곳에는 조선 시대 초 임금이 쉬어갔다는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었다. 그 후 커다란 그 은행나무에 금줄을 쳐놓고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수로서 역할 한다고 믿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그루가 불타고 말았으며, 나머지 한 그루가 남아 1968년 7월 3일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됐다.

바로 근처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버렸지만 옛날 임금님의 행차가 쉬어가던 이곳에 오르면 한강과 국회의사당이 지척에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당산(堂山)이라는 지명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당(堂)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집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일대를 '원당산'이라고 불렀다. '원당산' 위쪽은 '웃당산'이라 했고, 마을 안쪽 지역은 '안당산(또는 별당산)'이라 불렀다. 세 지역의 모든 당산동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곳 당집에 모여 의례를 열면서 마을과 가가호호 모든 구성원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빌던 곳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당산'에 있던 당집이 터주거리로 치성을 드리던 은행나무의 서낭당과 결합해서 오늘날의 부군당이 됐으며, 그 근원은 관제의 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당산동 부군당곳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당산향우회가 주관한다. 당곳은 원래 해마다 음력 7월 초하루와 10월 초하루, 일 년에 두 차례 거행했으나 재정적 문제와 주민 참여 문제로 인해 현재는 10월 1일 한 번만 지낸다.

## 상산전(上山殿)

상산전(上山殿)은 영등포전통시장 북문 쪽에 있다. 상산전은 행인들이 무사를 기원하고,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이 급제를 빌던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매우 신성한 곳으로 주변에서 전염병이 유행해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래가 있는데 이 제당 부근에는 장티푸스,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피해갔다고 한다.

조선 600여 년 전부터 버드나뭇길 포구 언덕인 고갯마루 서낭당으로 지나는 행인들이 무사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재난을 막기 위해 빌던 곳이다.

마을을 지켜주며 지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서낭신을 모신 신당을 성황당 또는 서낭당이라 한다.

영등포는 제물포나 수원 쪽에서 한양성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포구였다.

이곳 포구 언덕 고갯마루에도 서낭당이 있었고 대황(大恍)이라는 상산부군(上山府君)님을 모셔왔다고 한다.

6.25전쟁 때 무너진 당집을 1966년 다시 세워 상산전이라 이름 짓고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상산제'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말을 타고 지나가려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했다. 대한암흑기(일제) 때 어느 장군이 상산전 앞을 말을 탄 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말이 움직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칼로 말을 찔러 죽였다 한다.

현재의 제당은 1966년에 개축했다. 상산전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새로 들어선 아크로타워스퀘어 한쪽으로 한 번 더 이전을 했는데 영등포전통시장 북문 쪽이다.

현판과 안내문만 그대로 옮겨왔고 당집은 새로 지었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 불모지인 영등포에 민속문화재의 소중한 자신이다. 우리민족의 오랜 생활상과 사유가 스며있고 마을공동체적인 화합의 유전자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 〈2020년 오! 생활문화〉 관련 도서 목록

2020년 한 해 동안 〈오! 생활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급되었던, 공유경제, 마을 공동체 등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마을기록, 아카이브, 인터뷰, 대화 기술 등 실제 마을기록 활동과 인터뷰를 하면서 도움이 될 도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소장도서관이 없는 도서는 구매 준비중이며, 차후 영등포구립도서관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남 외 / 더 페이퍼 / 2018  
# 마을기록, 마을아카이브  
- 소장도서관 : 대림, 문래



은정아 / 산지니 / 2020  
# 아키비스트, 마을사람 기록  
- 소장도서관 : -



안정희 / 이야기나무 / 2015  
# 기록, 아키비스트  
- 소장도서관 : 대림, 문래, 선유, 작은도서관



아를레트 파르주 / 문학과지성사 / 2020  
# 아카이브, 역사  
- 소장도서관 : 선유



노명환 외 / HUINE / 2019  
# 아카이브, 기록학  
- 소장도서관 : 대림



모티머 J. 애들러 / 유유 / 2020  
# 대화  
- 소장도서관 : 선유



야마구치 다쿠로 / 센시오 / 2019  
# 대화, 인터뷰  
- 소장도서관 : -



위성남 / 책숲 / 2018  
# 마을공동체  
- 소장도서관 : -



제충만 / 푸른숲 / 2016  
# 마을공동체  
- 소장도서관 :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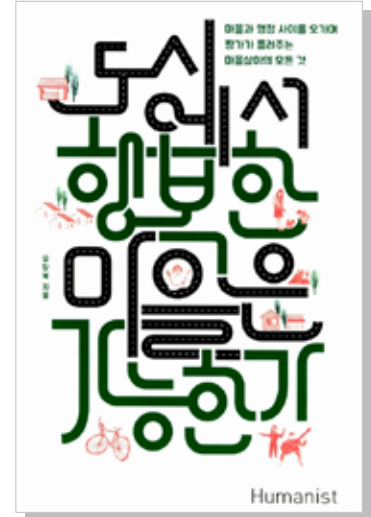
정기석 / 펄북스 / 2016  
# 마을공동체  
- 소장도서관 : -



조현 / 휴 / 2018# 마을공동체  
- 소장도서관 : 대림, 선유,  
작은도서관



김복동 외 / 스토어하우스 / 2020  
# 마을공동체  
- 소장도서관 : 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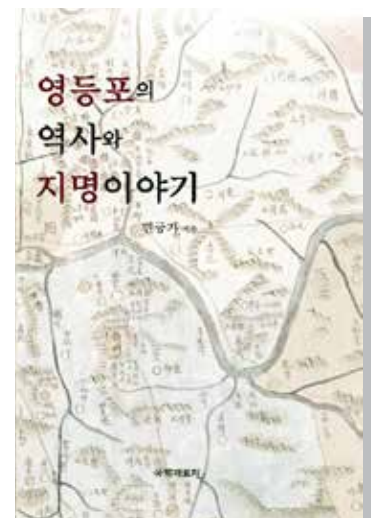
유창복 / 휴머니스트 / 2014  
# 마을, 마을기록  
- 소장도서관 : -



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  
# 공유경제  
- 소장도서관 : 선유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롤러코스터 / 2020  
# 공유경제  
- 소장도서관 : 문래



민궁기 / 국학자료원 / 2013  
# 영등포  
- 소장도서관 : 선유,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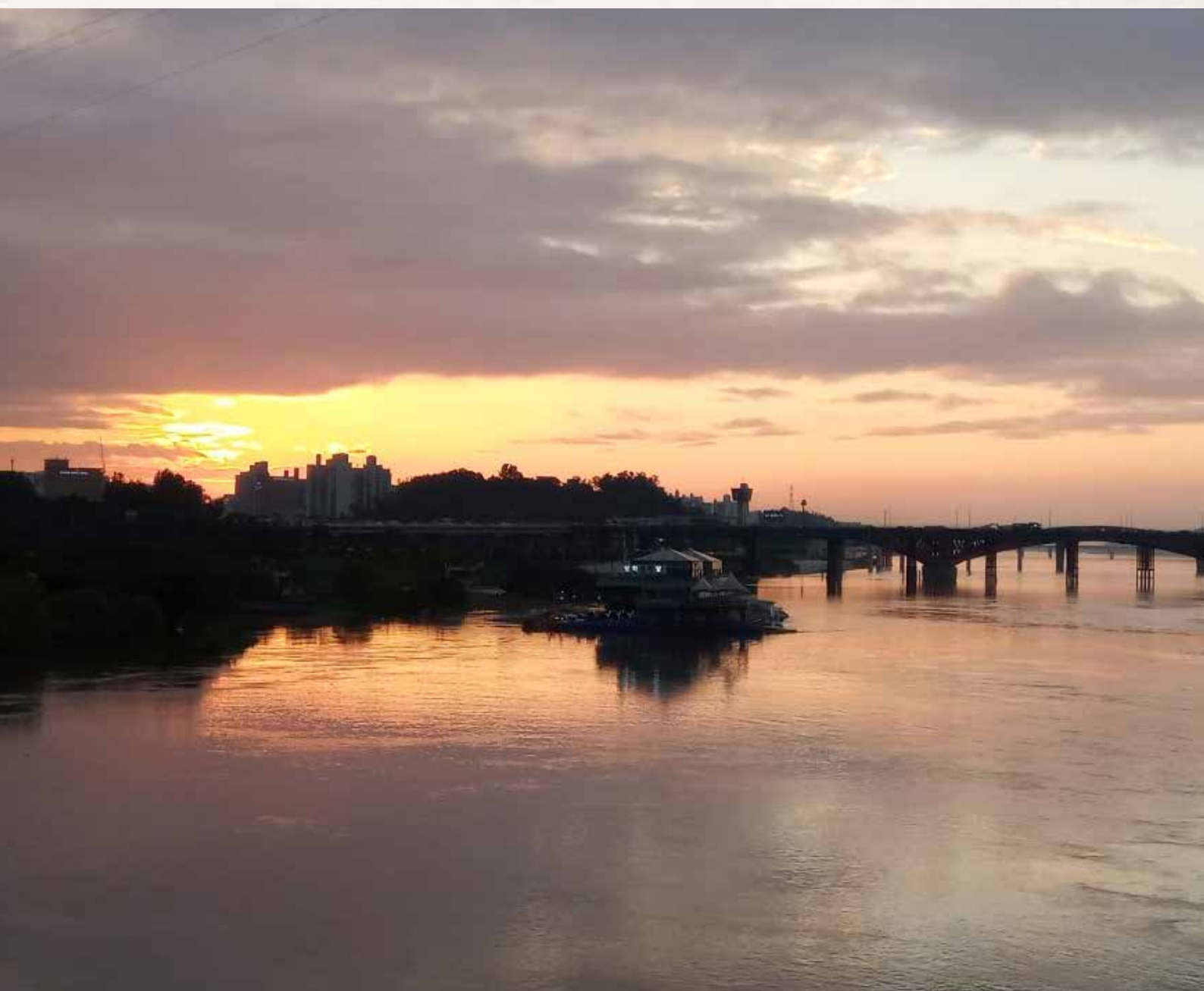


## 8월의 기록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기로 하고 번개로 각자 현재 있는 곳의 시간과 공간을 사진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변한 우리마을'과 15일의 '나의 지금 이 공간' 입니다.







# L 이 야 기

영등포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사서 L



안녕하세요?

생활문화 기록담당 영등포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이연주 사서입니다.

아마 올해 여름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줄의 인사를 시작으로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책상 위에는 2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사를 하면서 서랍 안쪽에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6월의 나와 2019년 6월의 나. 두 그림 모두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부스에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단발로 자르기까지 주변사람들을 귀찮게 하며 “긴 머리가 좋을까, 단발머리가 좋을까?”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동안 영양제를 발라가며 기른 머리가 아까웠지만 새로운 변신을 위한 ‘과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 6월의 나’도 ‘2019년 6월의 나’도 ‘2020년 6월의 나’ 역시 같은 길이와 같은 색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영양제를 바르며 머리를 길렀고 여름이 되기 전 습관처럼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선택을 했는데 항상 새로운 고민인 것처럼 고민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만약 이 그림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훨씬 줄지 않았을까. 그리고 2020년 6월에 나는 다른 선택을 한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2016년 6월 처음 본 사람과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앉아 그림이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저는 이 그림이 2020년에 저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을 주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 그림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혹은 쉽게 버렸다면 저는 2021년 6월에도 어깨선 길이에 갈색머리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록이 지금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지만 이 순간들이 사라지지 않게 차곡차곡 잘 보존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 Y 이야기

선유도서관 사서 Y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 기록 담당으로 선유도서관 사서 Y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해 다른 사서선생님들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지역 전문가분들과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다보니 벌써 8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노는게 제일 좋다는 어린 시절이라 동네 이곳저곳을 놀러다니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양한곳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면서 그때와는 마을이 변하였습니다.

이번 생활문화 기록을 통해 모임을 갖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지.’ ‘그래 이런 일도 있었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늘 익숙하다 보니 생활하다 보니 그런 변화들을 많이 잊고 지내고 느끼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동안 저는 사서로서 늘 도서관 안에서 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이용자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활문화기록을 통해 저희가 도서관 밖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등포가 어떤 곳이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모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기억과 남아있는 기록을 더듬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해 늘 자유롭게 만나다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서로를 안부를 묻게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순간 또한 우리에게겐 기억으로 남고 그 모습 또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문화가 되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한 내용들과 이야기들의 두 번째 기록이 만들어 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 작업들이 두근두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남아있을까요??

# K 이 야 기

선유도서관 사서 K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 기록 담당하고 있는 사서 K입니다.

한참 더운 7월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키며 생활문화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라테 한 잔을 훌쩍이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참 두 달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제가 살던 마을이 너무 좋아져서 바로 옆 구로로 잠시 피신해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는 저의 마음과 몸의 고향이기에 꼭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등포는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모두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과 든든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성인이 되어서 진로 걱정을 할 때 좋은 직장까지 저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영등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저에게도 처음 영등포를 기록한다는 계획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막하였습니다. 게다가 영등포를 수십 년 살았지만 정작 잘 아는 것들이 없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주민 참여자를 모아서 함께 교육을 받고 지역공동체 인터뷰까지 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듣고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서라는 직업은 참 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러한 직업 특성 때문인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일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사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진 지역주민분들은 오히려 사서들이 불편 없이 모임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료 사서분들도 참여자분들 덕분에 '잘 할 수 있을까?'에서 '이걸 해내네'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활동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들을 참여자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서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함께한 분들과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끝맺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A 이야기

문래정보도서관 사서 A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립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사서 안주연입니다.

2020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우리 도서관의 문을 여닫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버려서, 평범했던 많은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 해의 새로운 것 중 하나는 생활문화 담당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생활문화 기록” 사업의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는,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다보니, 벌써 전기장판을 꺼내는 계절이 되었네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아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길역 일대를 돌며 영등포 마을이야기를 듣던 날에는, 주민이자 마을해설사로 활동하시는 최연희 선생님의 유려한 설명과 함께 선생님의 뒤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환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첫 인터뷰를 한 10월 16일. 진심으로 이 날의 제 가장 큰 소원은 인터뷰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구술자를 섭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에 섭외를 시작해서,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10월 8일까지 한 달간의 인터뷰 구술자 섭외와 일정 조율 과정에서 첫 인터뷰인데, 혹시라도 진행이 잘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 먼 이탈리아에서 오신 여든이 넘으신 老수사님께서, 60여년전 처음 영등포구에 자리잡던 시기에 수도회 건물을 세우기 전, 땅을 메우던 흑백사진까지 저희를 위해 일부러 준비해주시고, 역사가 담긴 사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왔다고 지금의 찾아볼 수 없는 옛 귀한 사진과 역사가 담긴 책까지 흔쾌히 기증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생활문화 기록 사업을 함께하면서, 구립 공공도서관의 미래, 사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웃으며 뵙길 기대해봅니다.



## 2020 영등포 생활문화 기록

# <오! 생활문화>

구분	일정	내용
자문회의	7월 23일 '오'지는 생각 <자문회의>	생활문화 기록의 방향성
	11월 5일 '오'지는 생각 <자문회의>	생활문화 기록의 지속성
지역협의체 CoP	7월 30일 '오'지는 만남, CoP 1	지역협의체와의 만남, CoP : 공동체와 커먼즈
	8월 13일 '오'지는 만남, CoP	지역협의체와의 만남 CoP :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8월 20일 '오'지는 만남 <비대면>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
	8월 27일 '오'지게 만남 <비대면>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2, 인터뷰희망지 선정하기
	9월 3일 '오'지는 만남 <비대면>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3
	9월 10일 '오'지는 만남	인터뷰 할 마을공동체 논의
	9월 17일 '오'지는 만남 <비대면>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을 고민하다4
	9월 24일 CoP 14:00	CoP: 영등포의 이해
	10월 11일~21일 '오'지게 찾기 <마을공동체 만남>	지역협의체 선정 마을공동체 6곳 인터뷰
	10월 15일 CoP	CoP : 정릉 마을 기록이야기
	10월 22일 '오'지는 만남 <지역협의체>	인터뷰 자료의 기록에 대한 고민
	11월 5일 <오! 생활문화> 나눔회	<오!생활문화> 결과공유회
마이공	도서관홈페이지 '마이공' 업데이트 : 매주 '금'요일 월간정리 마이공 : 월1회	



# 함께한 우리동네 상점들



인터뷰  
마을이야기



## 나는 네 가슴에 아카이빙 됐다

정노천(시인)

확 꺾이는 길목마다  
새가 울고  
곡점마다 붉은 꽃이 피었다  
환한 꽃잎 속에 숨어서 웃던 사람아  
향기에 취해서 돌아 갈 길 놓칠라  
잡은 내 손 놓고 빨리 돌아가라 해가 진다  
모퉁이 길 돌아설 때마다  
깨진 기억의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번쩍번쩍 햇살이 자꾸 걸린다  
언제 상처가 꽃으로 핀 적 있더냐  
거친 숲에서 도망쳐 나온  
슬픈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를 막아선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슬펐니?  
중도에서 나는 아무 답도 주지 못했다  
기억 창고에 구겨 넣어서 보듬고 다듬어도  
녹진녹진해지지 않는 상처들

아픔 속에서  
사랑은 침묵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도  
답을 갖지 못했다  
기다림이 넘치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지치면 아픔이 되고  
결국 상처가 덧나고 화석으로 굳어지고 마는 기억들은  
내 험클어진 길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만다  
지난해 망각을 쫓우고 떠난 새들아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힘이 무엇이었나?  
이젠 울음을 멈추고 노래하라  
한 생을 녹여야 할 사랑이란 빛 덩어리  
네가 사는 네 격식을 누가 만들었나  
이 지상의 일이란 모두 녹이고 가라 한다  
황폐한 너의 가슴을 몰래 들춰보면  
오래된 아픔을 다 빼내지 못하지만  
지난해 울던 새야 맑은 너의 노랫소리에  
내 사랑이 차곡차곡 아카이빙되고 있었네  
씨앗처럼

## 대림동사람들

**일 시** 2020년 10월 11일(일)

**장 소** 대림동일대

**인터뷰이** 대림동사람들 고안수 대표님

**인터뷰어** 이국희, 황소연, 이길원, 이윤진

### 대림동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2018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친구들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문화다양성 정책개발 공모전에 도전해서 1등을 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대림동에서 어른들이 이어서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역에 살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나 한국 사람들, 원주민 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봅시다.”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었고, 대림동사람들이라는게 만들어진 거죠.

대림동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정하기 전에 저희는 무슨 단체나 이런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계모임 같은 모임이죠. 대림동에 살고, 대림동에 관심이 있고, 대림동의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한 번 정해 보자, 그리고 사업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2019년도에 영등포구 마을공동체사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대림동사람들이라게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존에 이웃사촌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사촌 이름을 정했다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

### 대림동사람들 모임의 구성원, 자격조건

대림동에 살거나, 대림동에 관심이 있고, 대림동의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 대림동 사람이고 싶은 누구나 다 자격이 되요. 다만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작년에 모임정례화를 하자고 해서 매월 3번째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 ‘3금만찬’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만 보통 5-10명

정도는 모여요.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분이나 중국동포, 활동가 등이 주로 오시고 한국인과 중국동포 비율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대표님께서)

####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우선, 제가 여기 대림동에서 살다보니 처음에는 직장인이니까 출퇴근하고 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느 보통 서울에 사는 일반인들 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자주 더 적극적으로 동네에 대해서 알려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동포들도 만나고 단체들도 찾아가 보고 그러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 부터인 것 같아요. 그 즈음 우리 동네에 고독사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아니라 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던 중국동포 한 분이 아파서 사망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혼자서 객지에서 반 지하 자취방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음습하다고 해야되나... 어둡고 좁고 이런 느낌. 그 분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잘 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거 같아요.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포들에 대한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대림역 8번 출구 담벼락에 보면 어떤 분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왜 그 글을 썼냐하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도 여기에서 사기당하지 말라고 거기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처음에 와서 정착하고 생존해 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대한민국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음협회'





라는 중국동포 모임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을 만나 봤고. 그렇게 해서 동포사회에 더 가깝게 제가 다가갈 수 있었고, 그 분들의 삶을 또 알 수 있게 되었지요.

### 대림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곳에 3층 정도의 건물을 가진 원주민, 이분들은 구로공단에서 피와 땀과 청춘을 바쳐서 얻은 성취물을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들도 30년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서울드림을 이루신거죠. 삶의 궤적으로 보면 인생의 최정점기를 지난 황혼기, 거의 이제 생을 마무리할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중국동포들, 이분들은 서울드림을 이룬 분들과 대척이 되죠. 중국동포들은 열정과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품고 이곳에 왔어요. 삶의 내리막을 걷고 안정을 바라는 원주민과 상승세와 활기찬 중국동포들 사이에는 공유점이 거의 없고 심지어 배타적이죠.

다음은 중국동포를 따라서 온 한족, 이분들은 한국을 보고 대림동에 오신게 아니에요. 중화문화권이라고 하는, 중국의 같은 동네에 살던 조선동포를 쫓아서 온 것이죠. 이들에게는 언

어의 문제도 없고, 문화의 장벽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 지역이 생활권이 아닌 베드타운으로 사는 사람, 거주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거죠. 이분들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 만 큼만 알아요.

### 대림동에 사는 주민간의 갈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림동에 생활권이 있거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지역사회에는 주류이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또는 상점의 주인, 건물의 주인. 그런데 그들은 중국동포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 득권에 대한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포 사회와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야 한다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지분이 중국동포 사회 또는 동포들에게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든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예를 들면 통장이나 명예동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동포들은 여기서 내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이게 내 집이고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 정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나이 드시고 20년, 30년 돼 가시는 분들은 이제 고향 같죠. 그렇지만 1.5세대, 2세대, 3세대 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중국 동포들도 동포들에 대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 외에는 참여가 드물어요. 중국동포들이 사람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들에게 지분을 부여해서 그들도 이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 나아갈 방향

이 동네에 사는 한 사람,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냥 대림골 동네 사람인거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생활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기를 바라고, 거기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는 제안도 하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행복한 공동체였다고 기억하는 것,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원하던 것을 주고받았다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로 살 것 같아요.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자원봉사자모임

**일 시** 2020년 10월 12일(월)

**장 소** 여의도샛강공원 샛강안내센터 자원봉사자실

**인터뷰이** 여의도샛강공원 자원봉사자 추종순 회장님, 총무님

**인터뷰어** 이윤재, 이연옥, 윤이나, 이길원, 이윤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속에 힘드실텐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날이 변화하는 영등포마을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하는 영등포구립도서관 마을기록활동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자님들과 같이 마을을 사랑하는 기본은 비슷하나 봉사자님들은 말없이 일하시는 숨은 일꾼들이셔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대한 애정이 남 다르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장) 예, 샛강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총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1997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인공적으로 생태공원을 계획해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생태공원으로 면적은 55만평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인 공원과 달리, 생태공원이라서 이 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한강공원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이면 자원봉사자가 3,000명 이상 해마다 찾아주셨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이 공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조성됐을 때 하고 지금 하고의 모습은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형적인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추종순 회장님께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공원의 수호신처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원봉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고, 봉사자 한 분 한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생태공원 안내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장)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는데 학생들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벤치마킹 오는 팀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부지사까지 와서 벤치마킹하고 가는데, 이 생태공원은 우리나라 생태공원의 효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 누구도 생태공원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올 때는 다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와서 사람들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동아일보 한국일보 KBS에서 계속 왔었는데 근래에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나와서 공원을 살피면서 안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휴일 날 찾아오는데 서울시에서 진짜 온전한 생태공원을 갈 데가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었지 여기는 진짜 순도 99.9%의 생태공원입니다. 거기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고, 아이들 데리고 수업 오는 엄마들도 20년을 무료로 해 줬어요. 우리 총무도 아이들 어렸을 때 저한테 수업을 받다가 들어와서 7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봉사자들과 선생님들도 다 저한테 아이들 수업을 받고 아이들이 심성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봉사를 나오는 거고요. 전에는 여기를 좋아하는 엄마들이 한 20명 정도가 계속 요일을 정해서 봉사하러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80세가 넘으니 연로하셔서 못하시고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와서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생태공원을 맡길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이걸 맡길 사람들이 없어서 저는 진짜 죽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 생태공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나이 70세에 150만원 들여서 숲생태해설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봉사하니 더 땀땀하고 열심히 하게 돼서 너무나 신바람 나게 잘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 유기농 식혜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가 유기농인지 식혜가 뭔지 아이들한테 풀어서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해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공부라기보다 같이 노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놀이를 하니깐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총무 말처럼, 1년에 몇 천 명씩 왔었는데 작년부터 여기를 서울시장이 환경단체에 관리를 하게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들어 왔어요.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와도 안내해주고, 알려져 이제 온전하게 되고 자리가 잡혀서 제대로 되니까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생태공원이 자리매김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회장) 생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공원을 다녀 봐도 여기처럼 자연 그대로 있는 데가 없었고 다른 곳은 손을 댄 곳이었어요.

여기 왔더니 입구에 생태공원이라고 써 있어서 둘러보았더니 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길이 막 뚫 빠지고 개똥밭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때 제가 시민운동을 했었어요.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부탁하고, 설명을 듣고 나니 부족한 거 같아서 그 때 나이 50대 후반 열정이 가득할 때니까 공원을 직접 다니면서 부족하거나 위험한 부분을 다 체크 했어요. 그 내용을 그 사람한테 가서 말했지요. 이 사람이 그때 위험한 상황을 새로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작은 방에다 의자만 하나 놓고는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고 보니 쓸만한 공원을 이 사람 오기 전에 여기를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환경운동연합인가? 어디다가 서울시에서 몇 백만원을 주고 관리를 맡겼는데 딱 1년을 하고 나니까 그 돈이 떨어지니 바로 떠나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 그만 두고 ‘이걸 내가 지켜야 돼!’ 하고 들어 왔어요. 그 후로 소장님이 바뀌면서 주변 유치원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유아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고, 비디오방 하나 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소장님과 같이 공부하고, 카메라 사서 모

니터링 하고 공원을 회생 시켰습니다. 연이어 좋은 관리자가 왔는데, 결국 작년에 저희가 전체를 다 뺐겨서 수업을 못 하고 그냥 봉사만 하래요. 여기도 지금 내가 월급을 다만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으면, 잘렸을 거예요. 하지만 수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요일마다 수업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지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내 뜻을 알고 착실하게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할 거라고 사무실에다 얘기는 했어요. “나,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고 뼈를 묻어도 여기다 묻을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이 숲을 버리고 갈 순 없잖아요? 자료는 공유하려고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이 가슴이 터지고 아프네요. 좋은 것은 젊은 사람한테 널리 알리고 나쁜 것은 그냥 저 혼자 담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인생의 진리고 제가 편하거든요.

### 자연 생태 공원 뿐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인생 선배로서 배울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회장) 아이들한테도 이 크리넥스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 스스로 알고 할 수 있게 옆에서 언짢만 하면 돼요. 떡 먹여서 소화 못 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떡 먹여 줘도 안 되고, 엄마는 자식 위해서 요리만 하고, 그 아이가 맛을 보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자기가 선택하게 해요. 요새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수업하기 한 30분 전에 이론 강의를 합니다. 아이들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근본을 알고, 여의도 셋강은 인생 공원입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것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연과 더불어 기본 교육과 예절 교육도 하니까 엄마들이 셋강 생태공원을 좋아합니다,

### 사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며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장) 지금은 열 명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한강 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셋강 사랑회’ 라고 봉사회를 하고 있어요

### 한강 도담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도담이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회장) 네, 거기에 등록을 해야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총무)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초에 한강공원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게 돼요. 모집하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강 도담이라는 데서 60명을 모집해요. 60명의 한강 도담이가 11개 한강공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 활동 자체가 많이 줄었고, 또 봉사자들도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두기도 하고 일단 활동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담이 분들이 11개 한강공원에서 자원봉사자

리더역할을 했어요. 개인적인 봉사가 아니고,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활동하게 되는데, 일단 한강 도담이가 되셔야 됩니다.

총무) 우리 단체도 일반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영등포구 관내에서도 봉사활동 문익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인수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환경연합회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하셨는지요?

회장) 네, 전에는 다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가 다 했어요.

### 봉사자로서 자부심이라든가, 봉사 전과 후의 다른 점이 있는지요?

총무) 제가 왔을 때는 계신 분들이 10년, 15년 되셔서 고개도 못 들 때였고요.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있는 몇 년 동안에 몸이 안 좋아지시고 이러시면서 못 나오시게 되었고 다행히 다른 분들이 와 주셨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 때문이었어요. 전 벌레도 무서워하고, 뱀도 무서워해요. 시골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제거를 하러 들어가면 어느새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은 선배 봉사자분들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꽃이나 새를 잘 알고 계시고, “3년 전에 있었던 꽃이 이번에 다시 피었네” 같은 말씀도 하시고, 셋강 생태 공원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눈에 보기에는 길도 반듯한 것 같지만, 안에 산책로는 생각보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는 이 길을 머릿속에 외우는데 3년 걸렸거든요.

참고로 올해는 동박새가 왔어요. 또 수리부엉이도 왔었고,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한 생물의 보고예요. 황조롱이도 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될까 봐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조마조마해요.

### 코로나, 폭우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데 또 다른 해와 다르게 봉사하실 때 힘드셨던 점은 있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고, 학생들이 못 오니까 셋강을 소개해줄 수 없는 점이 아쉬웠어요.



### 이용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회장)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풀이 좋아서 오는 사람, 운동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오더라도 '이곳의 주인은 이곳에 사는 자연생물들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연을 외면하고 자연을 못살게 굴면 결국 자연한테 보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이 좁았는데, 걸을 때 옷이 닿는다고 민원을 넣어서 지금은 풀을 다 깎아버렸어요. 메뚜기도 많았는데 메뚜기도 한 마리 없어요. 인간이 자기 편하려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장)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연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아이들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을 교육해주면 들을 때만 믿지만, 4~5세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해주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게도 말을 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 셋강 봉사를 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나요?

회장)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몰랐고 내가 못 봤던 것이지, 그래도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애쓰고 계셨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예요.

### 봉사를 하시면서 행정에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총무) 산책로가 오솔길 같은 느낌이라 참 좋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풀에 자꾸 발에 채인다고 민원을 넣으시니까 산책로의 풀을 깎아서 계속 길이 넓어졌어요. 사실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요.

거미 같은 게 있으면 거미줄을 피해서 들어가야 한다 등등.

뱀도 돌아다니는데, 이곳 뱀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이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뱀들은 비가 오고 나면 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몸을 말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생태를 알면 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요. 뱀들은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덤비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는 풀이나 바위는 피하는 게 좋아요.

### 나에게 여의도 셋강 생태 공원은 000이다.

회장) 저는 제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 저는 '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하면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회장) 3월 달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지를 띄울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줍니다. 길도 알아야 하고, 생태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원봉사자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장애우분들을 데려오셔서 수업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비죽비죽했는데 나중엔 좋아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친해져서 나를 좋아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강 생태 공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셋강의 생태공원이 더 울창하여 맑은 자연환경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평동교회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장 소 양평동교회

인터뷰이 양평동교회 김경우 담임목사님

인터뷰어 최연희, 황소연, 이길원, 이윤진

영등포구 양평2동에는 113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는 오랜 시간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양평동교회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2020년 10월 현재 담임 목사이신 김경우 목사님을 만나 백년이 넘는 그동안의 흥미진진한 교회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사진으로 보는 양평동교회 110년사

### 양평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교회 새문안교회의 자매교회로 1907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양평동교회입니다. 교회사에서는 113년간 한 번도 분열과 다툼, 분란이 없었던 선구적이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평한, 소위 양들이 평화로운 동네 양평동의 양평동교회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오래전 대홍수 때 주위가 다 물에 잠겼지만 교회가 있는 곳은 그 당시 언덕 제일 위이고, 누가 어디서 보아도 먼저 보이는 동네에서 가장 중심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언더우드 선교사가 심은 둥근 잎 느티나무가 교회 마당에 있었다고 하던데...

미국수종의 둥근 잎 느티나무는 교회를 다 가릴 정도로 큰 나무였어요. 교인들이 어릴 적에 그 나무 밑에서 놀고, 게임하고, 잠





\*사진출처 : 사진으로 보는 양평동교회 110년사

자고, 애기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무인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처음엔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잘못해서 부리가 상해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래 수령이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 심어져서 100년 넘게 교인들과의 추억이 많은 나무였지요. 지금은 교회 본당과 교육관에 강대상 십자로 만들어져 있고,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일부를 가져가 언더우드나무라 하여 도장을 만들어 불도장을 찍은 십자가나 말씀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채플실에도 강대상으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선교사님의 동근 앞 느티나무는 우리 양평동교회와 새문안교회 딱 두 군데만 심어졌는데 새문안교회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살아있었던 나무와도 많은 추억이 있지만, 나무가 죽어서도 십자가가 되고, 강대상이 되어 함께하니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리엔 교회장로님이 십년 전 미리 가지를 꺾어서 키운 묘목을 다시 심었는데 제법 잘 자라고 있습니다.

### 양평동교회가 학교를 설립했다면서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창립하신 언더우드선교사님은 양평동교회에서는 창립 때부터 소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1923년 독립 운동가이면서 4대 목사님이셨던 김백원 목사님의 주도로 학교 정규교육을 위한 정식학교인 창신학원이 설립되었고, 3년후인 1926년 학생의 증가와 교육을 인정받아 창신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 접어들어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학교에 대한 탄압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했습니다. 일제는 창신학교명을 경성창신학술강습소로 격하시키고, 일본어로만 교육을 강요했지만, 창신학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우리말 중심의 교육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초와 탄압을 받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민족과 학생들을 깨우치겠다는 사명감에 교육에만 전념했다

고 합니다. 이렇게 20여년간 양평동 지역과 인근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던 창신학교는 1946년 국가의 요청으로 학생전원을 당산초등학교에 인계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지역 연세 드신 분들 중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창신학교를 안 거친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제 강점기때 글을 가르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세워주니 그다음 고등 교육, 대학교육까지 계속 이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 드린 역할을 창신학교가 한 것이죠.

### 현재 당산동에 있는 노동, 인권과 관련 깊은 영등포산업선교회와 양평동교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보다 먼저 계셨던 전임 목사님이 23년 부임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정학 목사님이 34년을 부임하셨어요. 두 목사님이 거의 60년을 목회하셨는데, 이정학 목사님이 기독교 장로회 출신입니다. 잘 모르실텐데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이고, 기독교 장로회는 굉장히 사회개혁,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양평동 지역이 산업벨트로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 노동시간 단축, 권익 보호 활동들이 있었고, 그 당시 경찰들이 거의 교회에 상주하다시피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정학 목사님이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면서 권익을 보호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위로 받고, 객지에 와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워주려고 한 것이 영등포산업선교회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일을 하는 기관이 되었지만 재단은 교회 소속입니다.

### 1960년대 양평동 해태제과 공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들을 위한 야학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정학 목사님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닌 노동자들을 위해 성경구락부에서 야간 중등과정 학교를 진행한 겁니다. 교회 선생님들과 대학생 교인들이 선생님이 되어 15~1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노동자들 중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 받고, 교회 소속하면서 결혼도 하셔서 지금도 교회식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학 운영과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법정 공휴일 휴무와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전쟁처럼 싸워가지고 결국은 얻어낸 성과입니다.

### <양평동교회 110년사> 책의 내용 중 3.1만세 운동이 당시 양평리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1913년에 양평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탄원기 성도님의 주도로 1919년 3월 23일 300명 정도가 모여서 주일 밤에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이지역의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이 다른 지역으로도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난 양평리 보리밭은 현재 롯데홈쇼핑 앞 차도로 추정되고, 만세운동으로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탄원기 성도의 판결문이 국가기록원에 소장 되어 있습니다. 탄원기 성도님은 2012년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교회는 작년에 3.1운동 참여 교회라는 현판을 받았습니다.

###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선 양평동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모든 교육, 복지, 구제를 주민 센터나 구청, 국가에서 잘 하시니, 저희는 요청이 있을 땐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교회의 본연의 일들을 잘 하려고 하고, 비전이라면 가정 치유 쪽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별가정, 이혼가정, 갈등 있는 가정들의 상담과 치유로 안정을 찾길 바라고, 스마트폰에 매몰되어 외롭고, 힘들고, 대인관계 역량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연약하고, 비뚤어진 모습의 사람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교정 받고, 치유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더 본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더 본질적인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3년이라는 긴 시간의 이야기를 한두 시간에 다 듣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둥근 잎 느티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무슨 놀이를 했을까? 무슨 재미난 이야기들을 했을까? 일제의 총칼 앞에서 숨죽이며 배우는 우리말 수업은 어땠을까? 어둑어둑한 밤 보리밭에서 힘차게 외치던 만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힘든 노동 끝에 배우고자 늦은 밤 야학을 찾아왔던 여공들의 삶은 어땠을까? 등등... 점점 더 자세한 마을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 살레시오수도회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살레시오수도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교무실  
**인터뷰이** 살레시오수도회 윤석렬(필립보) 교장수사님, 임충신(마리노) 수사님,  
노일중(아오스딩) 교감수사님  
**인터뷰어** 홍정희, 권오희, 이길원, 안주연

영등포구 구립도서관에서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마을이야기) 영등포마을 기록을 위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살레시오 수도회 윤석렬 교장 수사님, 임충신 마리노 수사님, 노일중 교감 수사님 세 분입니다.

인터뷰 일시는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살레시오 수도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교무실입니다. 인터뷰 진행은 홍정희, 영상촬영은 권오희, 사진촬영은 이길원, 인터뷰 현장기록은 안주연입니다.

### 홍정희 :

살레시오 수도회를 처음 만나는 주민들을 위해 살레시오 수도회에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윤석렬 교장 수사님 :

살레시오 수도회는 이태리에서 북부 토리노 발독코라는 곳에서 시작된 수도회입니다. 돈보스코라는 이태리 성인 신부님께서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직접 직업 교육도 해서 기술 교육도 가르치고, 인쇄 출판이라든지 재봉일, 구두수선, 직접 기술을 가르쳐서 또 취업까지 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의 악에 빠지지 않게 가르치시고 즐겁게 지내며 기쁨이 늘 함께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살레시오라는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기술학교, 상담 센터, 수련관, 그룹홈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수도회입니다.

**홍정희 :**

살레시오 수도회가 영등포구 자리를 잡게 된 과정과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중 영등포구에 터를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충신 마리노 수사님 :**

살레시오는 돈보스코 이름으로 살레시오라고 가톨릭신문에서 계속 돈보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돈보스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가 그때 1963년도에 지어서 1964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그때 마신부님이이 여기에서 살레시오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만들고, 회원이 되면 신학교를 가야 하니까,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윤석렬 교장 수사님 :**

특히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많은 노동자들은 영등포구에 공장지대가 있으니 구로공단과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등포구가 땅값이 싸고 저렴해서 여기에서 땅을 사고 구로공단에 근로자들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난한 지역에 땅을 사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도림동 성당 자리도 꽤 중요한 자리가 되어 있고 구로3동 성당도 꽤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일종 교감 수사님 :**

살레시오가 있는 곳은 어디든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외부 사람들이 보증수표로 생각하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홍정희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올해 포스코청암상도 수상하셨는데, 이 상의 수상을 통해서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윤석렬 교장 수사님 :**

솔직히 이렇게 큰 상인 줄 몰랐습니다. 받고 보니 엄청 큰 상이더라고요. 저희는 단체상이지요. 그 청암상에는 4개 부문이 있습니다. 기술부문, 과학부문, 교육부문, 봉사부문 그 중에 교육부문에서 받았습니다. 50여 년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3천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공장 또는 회사, 여러 분야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의 성장을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3년도에 설립 저희보다 오래된 곳은 사라졌고 정밀 기계, 가공 기술 분야에서 한 분야로 50여년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고, 연초에 아프리카로 기술지원을 갑니다. 동문들이 자금과 기계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 도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상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권오희 :**

그럼 상을 받으셨는데 혜택이 있으신가요?

**윤석렬 교장 수사님 :**

그 상금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2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을 주기에 그것으로 체육관 보수하고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홍정희 :**

돈보스코 직업학교 졸업생 3천 명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임충신 마리노 수사님 :**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호진 선생님입니다. 동문들과 활동하면서 친구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우리가 여기 돈보스코 형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서 10년간 일을 해서 저희가 동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더니 종합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



하고 이렇게 돈보스코 모습, 이태리 가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기계들은 동문들이 다 기증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서울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대학교수 하는 분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권오희 :**

그 중에 또 생각나는 분 좀 이야기해주세요.

**임충신 마리노 수사님 :**

이태리에서 도착했는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1988년도에 동상이 왔습니다. 돈보스코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친구가 “수사님 왜 그 때 큰소리치고 나한테 그랬어요.” “너가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랬지.”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것 초값입니다. 그때 천불(\$1,000)을 이 친구가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선교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일천 만원이면 되겠지요. 라면서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큰 기업에 들어가서 사장이 되고, 그곳에서 근로자로 50년간 근무했습니다. 은퇴하면서 퇴직하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 자녀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자주 모여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멋진 친구입니다.

**노일종 교감 수사님 :**

저는 26년차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그만 두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정상적이지 못했고, 그 아이를 부탁을 받았는데 정신지체1급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요. 정신지체라는 것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기주장도 못 하고 부모님이 억압으로 아이를 통제 한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곳에 와서 생활을 했고, 주말에 집에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좀 서러워서 제가 아버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만이라도 보낼 테니까 어떻게 지내니,라고고 한 번만 제발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뀌어 갔고, 취업을 하고 지금 3년째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 **권오희 :**

학생이랑 선생님이 모두 수사님이신가요?

### **노일종 교감 수사님 :**

수사님, 일반 선생님, 학생이 40여명, 선생님 6명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기숙사 생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생활부터 안정이 안 되면 이런 장애요소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부터 좋은 생활 습관의 기술이 쌓여야 이것 기술도 오래가고 잘 쓰이지 그 돈 벌고만 한다는 기술로 마치면 오래 못 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인성교육을 하고 있죠. 종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먼저 좋은 방향과 생활습관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쁘게 활동도 많이 시킵니다.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양면으로 하는 거지요. 생활과 기술, 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선생님들 반반이 된다고 봐야 되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수사님들도 같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수사님들도 직접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기능장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자격으로 정식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희 :**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느낀 영등포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윤석렬 교장 수사님 :**

대길초등학교, 두산 위브 아파트 부지도 저희 땅이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대도 만들어 여름에도 운동 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넓은 대지를 개방해서 주변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요. 문화교육센터가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곳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50년' 그 책에 보시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홍정희 :**

이렇게 활동하시는 수사님들의 생활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윤석렬 교장 수사님 :**

이 건물 6층이 우리 수도권입니다. 이곳에 4개의 시설이 있어요.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오라토리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보호 밖 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로 영등포지역 아동복지센터, 돈보스코 자립관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24살까지 도와주는 자립생활관이 있고 70% 이상을 저축하는 조건으로 여기에서 4~5년 있게 되지요. 1억 정도 성실하게 모아서 여기서 나갈 때는 LH 전세 용자 혜택을 받고 합니다.

4개 시설에 근무하는 신부님, 수사님들이 계시는데 수도원이 6층에 있고, 거기에 간단히 우리끼리 기도하는 경당이 있고 해서 아침 6시 15분에 아침 기도, 미사, 묵상을 하고요. 식사는 그 위에서 하고요. 물론 역할이 있는 수사님들은 애들 칸에 내려와서 같이 먹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점심에 개인적으로 잠깐 묵상하고 식사하고 저녁 기도를 5시에 합니다. 영적 독서하고 기도하고 시설별로 끝까지 잘 때까지 함께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가 넘어야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해 주시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홍정희 :**

영등포 주민 분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의 계획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석렬 교장 수사님 :**

특히 현재 도움이 더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젊은이들에게 더 집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설이 더욱 많이 늘어났지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영등포 아동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오라토리오, 기술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사업,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안주연 :**

들어왔을 때 안에 건물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활용도가 높겠네요?

**윤석렬 교장 수사님 :**

축구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을에 이곳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희 :**

지역 주민들이 2002년 월드컵도 같이 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나요?

**노일종 교감 수사님 :**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어요. 왜 못 들어오게 되었냐 하면,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같이 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빌려도 주었어요.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생을 하고, 그리고 주민회의나 장소가 필요할 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재난대피시설로 해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만 써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권오희 :**

홈페이지에 보니까 카페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도 하시나요?

**노일종 교감 수사님 :**

사회적 기업으로 스타벅스에서 후원해 주고 있으며, 수도회 직원하고 교직원들은 할인, 청소년 학생들도 할인이 됩니다.

**홍정희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등포산업선교회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장 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터뷰이 손은정 총무목사님

인터뷰어 강정숙, 이경희, 이미숙, 이윤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하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영등포에서 62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등포와 영등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있던 차에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기쁘게 응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대해 듣기에 앞서 손은정 총무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 살게 되신 계기나 과정, 현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를 맡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2000년도에 실무자를 겸해서 교회 전도사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늘 들어왔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88년도 당시는 군부독재의 마지막 횡포와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재학중이

던 98년 IMF로 대량해고로 인해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생겼고 그 당시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산업선교회 목사님의 부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밥하는 봉사를 하게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산업선교의 제안도 있었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생각이나 실천과 맥락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10월에 인턴으로 와서 2001년도에 영등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성문밖교회의 담임목사로 목회를 주된 일로 했고 2009년 5월부터는 2014년 2월까지 산업선교회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약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30대와 40대 중반까지는 이곳에서 보냈어요. 그 이후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다가 2020년 3월 10일부터 다시 복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산업선교회가 자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종교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영등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영등포산업선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활동 방향은 무엇인가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개신교에 속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한 기관입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가 1957년도에 결의를 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5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57년 무렵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막 공업화, 산업화가 시작됐던 초창기였습니다.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경공업 사회로 변하고 성장하고 있던 시기여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 공장으로 막 몰려오던 시기였어요. 특히 이곳 영등포는 최대 경공업지구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는 곳이었고 전도의 방향을 농촌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산업으로 돌려야한다는 많은 조언과 제안들을 총회가 받아들여 58년 4월 19일에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64년 1대 총무라고 할 수 있는 조지송 목사님이 오시고, 68년도에는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금까지의 복음 전도를 산업선교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게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조건으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과제라고 천명하고 산업선교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거죠.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는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예배하고 성경공부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의 노동환경, 노동시간, 임금체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고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가게 된거죠. 유신체제에서는 감시,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겠지만 72년 이후는 7-8명씩 소그룹으로 조직을 많게는 15개 정도 가동시켰어요. 최소 500~800명 많게는 천 명까지. 처음에는 꽃꽂이, 요리, 한문공부, 독서 등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공장의 변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잘 알면서 움직였던 거죠. 이곳은 정권을 위협하는 기관으로 찍히면서 감시가 더 강화되고 이곳을 해산시키고 무력화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언론 탄압 등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수 많은 노동자들의 삶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기틀을 마련한 곳입니다.

민주노총이 세워지고 노동운동이 전문화, 대중화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산업선교회 차원에서도 변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래, 공적인 손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내려가야한다 해서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했었고 2010년부터는 종교기관의 특징을 살려서 심리적, 영성적,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노동자품'이라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통통톡'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민주노총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노동자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산업선교회가 펼친 1970년대 노동운동과 그 이후 풀뿌리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평가점 어떤 것인가요?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이곳 산업선교회는 노동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했죠. 70~80년대 군부독재 하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늘 감시와 감금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곳을 그 단체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주었어요. 노동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힐 공간이 이곳 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주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년 이후로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산업선교회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조금 줄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노동자 학교, 노동자 간부 교육, 노



동조합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여기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곳을 이용했었죠.

이곳은 노동운동의 산실이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기초를 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한국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공적이 인정되어 이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고 이곳의 활동들이 제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서울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 5월쯤 이곳 지하에 역사 전시관을 개관할 수 있게 됩니다.

###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3층은 성문밖교회 예배당인데, 성문밖교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77년도에 노동교회로 시작해서 88년도에 성문밖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성문 밖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예수께서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에서 빌어온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가 성문 밖이었거든요. 성문 밖은 지배 체제가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혹은 아웃사이더들의 공간이잖아요. 노동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문 밖의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꿨는데 현재까지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 **현재도 김미순 해태제과 활동가가 성문밖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관계하고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해태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하셨던 선배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당시 노동 선배들 중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아직도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면서 이 신앙공동체에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 **영등포산업선교회는 현재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을 결합하며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운동의 전망과 역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특히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2000년도에 비정규직, 미조직 이렇게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 선교사업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2000년도 당시 협동조합 부분을 확장해야 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2년도에 의료생협 시작을 했습니다. 조지송 목사님께서 1969년도에 50명이 1만 4천원을 출자해서 신용협동조합 다람쥐회를 만드셨는데 50명이 72년도에 정부로부터 영등포 신용개발협동조합 1호로 인가를 받기도 했어요.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신탁조합이라든지 주택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을 계속 해왔어요. 2000년도에 의료생협, 먹거리 생협은 2004년도, 2006년도에 생활공동체

협의회, 나눠먹자는 의미의 노느매기 자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알고, 서로 나눠먹고, 그냥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야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들이 소원하고 잘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 지역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내고 같이 더불어 살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지역에 있는 활동가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서로의 어려움들도 나누고, 풀어내야 할 것들도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2010년도에 목요밥상을 시작했어요. 그런 밥상모임을 해왔듯이 이 영등포 지역에서 저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노동, 공업, 노동자들이 밀집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우리 산업선교회가 내어줄 수 있는 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지역에 맞게,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밥상 모임이나 협동조합들도 이 지역과 계속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요청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은정 총무님이 영등포 지역사회 또는 영등포구립도서관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반 백년을 넘는 동안 영등포에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외에 젊은 사람들은 이곳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인터뷰 중 소개했던 책들과 산업선교회의 대단했던 보고서, 어른들의 평전들, 노동 선배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구립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이 영등포 지역이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들이 자의의식을 갖도록 해왔던 그 중요한 역사와 역할들에 대해서 영등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이곳에 개관 예정인 역사 전시관과 구립도서관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역사 전시관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 삼원농장 계란 할아버지 '최완규' 영등포에서 태어난 터줏대감, 옛날이야기도 구수해요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장 소 삼원농장

인터뷰이 최완규 삼원농장 사장님, 사모님

인터뷰어 정노천, 정선이, 김인용, 이길원, 이윤진

영등포구립도서관 2020년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오! 생활 문화>의 일환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삼원농장을 취재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삼원농장에서 최완규(66세) 사장을 만났다. 그는 영등포에서 태어나 영등포에서 40여 년간 계란장사로 한 길을 걸어온 영등포 터줏대감이다. 그를 통해 계란이야기와 구수한 영등포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정노천** : 하루 계란의 물동량은 얼마이고 현재 몇 군데 납품을 하시고, 판매방법 등 삼원농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최완규** : 현재 계란 납품 물량은 하루에 약 3만개에서 4만개가 나가고요, 주요 공급처가 서울대학교 내 식당과 여의도 등에 약 70~80% 공급합니다. 직원이 여의도 코스를 돌지요. 아침 5시쯤 나가서 식당 40~50군데를 납품합니다. 한 식당에 다섯 판에서 열 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과점과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노천** : 하루 일과 시작은 새벽 5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최완규** : 새벽 5시에 나가서 열시까지 돌고 한두 시간 쉬다가 점심 먹고 1시부터 오후 일정을 시작하죠. 저녁에는 10시까지 하는데 6시면 직원들은 다 퇴근합니다.

**정노천** : 여기 상점은 조그마한데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최완규** : 아니 여기만 그렇고 큰 창고가 따로 있어요. 냉동 창고도 있고, 직원이 6명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납품하기 때문에 따로 창고가 있어요.

**정노천** : 여기서 상당히 오래 가게를 하셨다는 건데?

**최완규** : 41년이 됐어요. 1979년 7월부터 이일을 시작했지요.





**정노천** :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최완규** : 본래 시작은 이 부근 주택에서 하다가 가게가 작고 여기 인구가 많아서 이쪽으로 옮겨 온 거죠. 이쪽으로 온 것이 한 20년 됐죠. 자이아파트로 불리는 바람에 여기로 옮겨 온 거지요.

**정노천** : 경쟁도 있었을 텐데... 성공하신 것은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겠지요?

**최완규** : 저는 군대 보안대를 나왔고, 중사로 제대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데모를 해서 군대에 끌려갔는데 제대를 하고 곧장 계란 장사를 시작했지요. 저희가 규모를 크게 했어요. 삼립빵, 해태, 빙그레 등에 거래를 하면서 켈 크게 하다가 IMF 때 혼이 났어요.

**정노천** : 크게 했는데도 그래요?

**최완규** : 계란 사업은 액면이 커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돌리는 금액이 일 년에 몇 백억이 됐어요.

**정노천** : 계란사업이 그렇게 큰가요?

**최완규** : 커요. 계란 한 차면 이천만원이잖아요. 하루에 한 차면 이천만원. 이천만원 곱하기 삼십 하면 육억이잖아요. 육억 곱하기 열두 달 하면 칠십이억이지, 큰 차도 있는데 저 작은 차 한 대만해도 칠억이지요.

**이윤진** : 저 차에 꽉 채우면 이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최완규** : 한 차에 십만 개면 이천만원 아냐 계란 하나에 이백 원이잖아요. 이백 원! 팔 톤 차량이면 억이예요 억!

**정노천** : 어디서 특별히 농장을 하는 거예요?

**최완규** : 직접 작은 농장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켈 큰 양계장인 조인이라는 곳과 거래한 지가 40년째가 됐어요.

**정노천** : 음 계란이라! 그 작고 둥근 것을 무시할 수 없군요.

**최완규** : 제가 시작할 때는 선배들이 짚꾸러미를 할 때였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계란상인 연합회를 세웠어요. 업주들을 모아서 그때 풀무원 사장이 회장을 맡고 내가 총무를 맡았지요. 그렇게 뭉쳐서 단합을 하고 상인협회를 세웠던 거예요. 발기인이 전국으로 230명, 지금은 회원이 1000명 넘을 거예요.

**정노천** : 계란 사업을 예사롭게 볼게 아니네요, 전체 시장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최완규** : 제가 아는 게 거의 일조원대 될 거예요.

**정노천** : 하아~ 엄청 시장이 크네요.

**이길원** : 그래 계란 안 먹는 집이 없으니까.

**최완규** : 아이 이렇게 따지면 되요. 전 국민이 오천 만 명이면 계란 오천만개 공급하기 200원 곱해봐요. 1조짱아 간단하지 뭐 지금 오천만개. 계란장사는 암산을 잘하니까. 이게 2천만 원 곱하기 하면 일조짱아. 근데 지금 한 6천만 개 나오거든

**정노천** : 삼원농장의 연매출이 어떻게 되요?

**최완규** : 지금은 작아요. 현재 약 15억. 한 달에 약 1억 2천정도.

**정노천** : 대단하군요. 중소기업이네요.

**최완규** : 대단한 거 아니지. 옛날에 몇 백억씩 했어요.

**정노천** :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은 없으세요?

**최완규** : 있죠. 우리가 지금 대충 30%는 줄었어요.

**정선이** : 어차피 먹는 건데

**최완규** : 먹는 거니까. 식당이 문 닫고 학교도 급식을 쉬고. 전국 학교에 들어가는 계란이 한 5~6백만 개 들어가는데. 학교 급식이 엄청나지요.

**정선이** : 그 당시는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계란을 사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새로 생긴 주변 아파트 손님들이 많겠네요.

**최완규** : 지금은 워낙 인터넷 sns 등 발달이 돼서 여기 소매하는 사람들끼리 이 집 계란이 좋다고 공유해서 매출이 많아요. 분당. 청량리 등 멀리서도 차를 갖고 많이들 와요.

**정노천** : 계란이 다른 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최완규** : 하얀 계란이 우리나라 우리 집밖에 없어요. '조인'에서 고급 계란을 만든 거지요. 브로콜리 사료 먹인 무항생제 하얀색 계란입니다.

**정노천** : 그렇게 구분이 되군요.

**최완규** : 닭이 작고 어릴 때는 알이 작고. 나이가 많을 때는 크게 낳아요. 더 큰 계란을 만들려면 닭을 굵겨요. 한 일주일을 굵기면 털을 싹 뽑아. 다시 털이 나는 걸 털갈이라고 하는데 털갈이하면 그땐 커다란 계란을 낳지요.

**이윤진** : 털갈이 할 때.

**최완규** : 우리나라 사람은 큰 걸 좋아하는데. 절대 그게 아냐. 계란은 작을수록 좋은 거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처럼 그냥 계란을 깨 먹으면 큰일 나오. 소독을 안 하면 모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아서 계란 껍데기에 살모라균이 있어요. 절대 생으로 깨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가게 계란들은 나오자마자 소독하고 세척해서 나온 계란입니다.

**정노천** : 보통 계란 보존 기간이 얼마정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완규** : 계란은 껍데기와 안에 하얀 막이 있어요. 그 막이 떨어지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계란 껍질엔 400~500개의 숨구멍이 있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시키면 다시 부화를 하지요. 유정란 같은 경우는 15~20일정도 갑니다. 무정란이면 법적인건 45일이에요. 근데 냉장고에 가만히 넣어두고 껍데기만 흔들리지 않으면 4~5개월까지 가요. 계란이 신선한가 아닌가는 날계란을 돌렸을 때 안 돌아가면 괜찮은데 돌아가는 계란은 상했다는 거지요.

**이길원** : 상한 계란도 많았지요.

**최완규** : 우스운 소리 좀 하라고 그랬죠? 82년도 학생 데모 많이 할 때 여의도에서 계란 많이 팔았어요. 옛날 우리 때는 계란 던지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거 갖다 줄 수 있나요. 싸구려 계란 갖다 주고, 비싸게 받는 거야. 여의도 가서...

**이길원** : 그치 그거는 어차피 던질꺼니까. 썩은 계란도 던지는데.

**최완규** : 냄새 엄청 고약해서 못 먹어요. 계란이 오래되면 계란 껍데기 수분이 날라 가. 계란이 약간 보어져. 흔히들 계란이 까칠까칠한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늙은 닭이 낳은 거고. 계란을 봐서 예쁘고 반질반질 한 게 좋은 거야.

**이길원** : 던지는 계란을 누구한테 가서 사달라고 했나요?

**최완규** : 그게 아니고. 데모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계란 필요하냐고 물었지. 그 짓 많이 했다니까. 연대, 고대 앞. 여의도에서도.

**이길원** : 그러시다가 시위물품 댔다고 잡혀가면 어쩔라고?

**최완규** : 장사는 노하우가 있어. 그러기 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계란 두어 판 씩 판다고 로비를 해놓지요. 계란 장사가 몇 년인데...

**정노천** : 지난번에 시인가 뭐... 그때는 어땠어요?

**최완규** :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죠. 그 때 계란 한 판에 도매 농장도 가격이 7,000원 정도 였는데 우리는 12,000원씩 사다가 납품을 했으니까. 식당에 그 판수를 채워줘야 되잖아. 엄청나게 손해 봤어요. 그 때 한 달에 한 가게에서 일천만원~이천만원씩 손해 봤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신용이라 일단 비싸게 사서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 때 계란 집들이 완전 작살났어요.

**정노천** : 계란장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군요?

**최완규** :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힘도 들어요. 여기 직원들이 오면 석 달을 못 버터

요. 계란 한판 무게가 28Kg이 나가요. 이걸 하루에 오천 판 씩 나르면 많이 힘들지요. 한 번에 열판을 들어요. 요령이 없으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열다섯 판씩 드는데 정말 무거워요.

**정노천** : 그럼 직원들이 떨어뜨려서 깬 적도 많겠군요.

**최완규** : 많죠. 계란 이삼백개 판은 먹어야 제대로 일을 배운다고 하지요. 그런데다 운전도 힘들어요. 계란은 같이 핸들 따라가잖아. 계란 차 운전했다면 어디든 합격이 되잖아.

**이길원** : 베스트 드라이버. 계란 차 운전했다하면.

**최완규** : 적재 초과인데도 운전 잘 하잖아요. 집사람이 큰 차, 작은 차 모두 운전하는데 적재도 3다이씩 올려요. 계란판과 판 사이 하얀 거 있죠. 그게 견디는 힘이 십 톤이에요. 그러니까 차력을 한다고 계란판에 서지요. 계란을 세우면 버티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장사라도 계란을 상하로는 못 깨요.

**정노천** : 계란을 사러 와서 재미난 에피소드나 어떤 손님이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최완규** : 옛날에는 다들 생활이 어려웠고 그니까 계란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먹을 게 귀하니까 차에 놔두면. 차에서 가져가거나 차째 통째로 가져가던가.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꿨지요. 우리나라가 OECD들어가고. 경제도 좋아져서 그렇지. 별일 다 있었어요. 깨진 계란은 버리는데. 그 걸 먹으려고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모님** : 그들에게 줬지요. 그것도 못 먹는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주지도 않지만.

**정노천** : 이 근방은 거의 재개발이 다 된 거죠?

**최완규** : 네 다됐죠. 이제 우리 가게도 삼년 정도 남았죠. 아파트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평당 사천만원인가. 오천만원 간다며?

**정노천** : 개발이 많이 됐군요. 부근에 사장님이 옛날부터 알고 있는 곳이나 좀 보존했으면 좋을 것 같은 곳. 사라진 유물 유적이라던 지 이런 게 있었어요?

**최완규** : 저희 집이 이 공원 밑에 살았었는데. 그게 헐렸고. 현재 남아야 될 것 같은 거는. 고바우 식당 같은 거. 그 집도 워낙 오래 됐고. 근데 그 집도 형님이 돌아가시고. 병원에 한 몇 년간 있더니 재산 다 날려 먹었고. 그 형수가 가마솥에 다 끓였거든. 그 집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옛날에 고바우 식당하면 택시기사가 다 알았어요.

**정노천** : 영등포에 유적지라든지 유물 등은 없었어요?

**최완규** : 여기는 크게 없었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동사무소 자리(신길5동) 거기가 묘지가 꽤 있었어요.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우리 형 또래들이 그걸 팠는데 석관이 나왔어요. 그 석관이 몇 백 년 됐데요. 석관이 오래 됐으니까 금이 갔을 거 아냐. 우리 형이 49년 생이니까. 그 또래들이 그걸 깨봤나 봐. 근데 그 속에 시신이 그대로 있어. 미라처럼

**정노천** : 그거 보관 안 되어있어요?

**최완규** : 안되어 있지. 아. 그때는 막말로 우리 어렸을 때. 그 옛날 그런 거 많았잖아. 고물이면 다 옛바뀌 먹고. 아버지 고무신까지 갖다가 옛 바뀜 먹었다가 매 맞고 그랬는데. 그때 고물장사들 머리가 깎은 사람들은 지금 저기 다 가있던데. 거 어디야. 그 뭐야. 고물. 옛날 거 취급 많이 하는데.

**이길원** : 인사동?

**최완규** : 인사동. 거기 다 가 있잖아. 그때 가보니까. 몇 사람 알겠던데. 부러 옛장수하고. 그거 좇아갔고 옛 바뀜주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 그때가 50~60년대였지 아마.

**정선이** : 여기가 그때 벌판이었나봐요?

**최완규** : 거의 묘지. 공동묘지고. 미군부대 고물상. 그래서 여기서

**정노천** : 미군들이 고물상을 해요?

**최완규** : 저기 OB맥주. 크라운 맥주 자리가 다 미군부대 고물상이었잖아요. 미군부대 전쟁 나고 남은 찌꺼기. 쇧조각을 쌓아 놓은 자리.

**이길원** : 아~ 고물상을 미군부대에서 나온. 고철로 쌓아 놓는 거예요?

**최완규** : 응. 그거잖아. 그 자리잖아. 그래서 이 동네도 없는 사람이 땅을 파는데 낫쇠 이런 쇧조각이 나와요. 내 선배들은 낫쇠 빼려고 105미리 폭탄 갖고 땅땅 치다가 터져서 여섯 명 중 하나 살았는데 눈이 이렇게 다치고 머리가 나가고. 그 때는 그런 일이 많았지. 거의 그거예요. 여기 신미 아파트 자리에서.

**이윤진** : 신미아파트 생기기 전에 뭔가 있었어요. 신미아파트 자리에.

**최완규** : 신미아파트 자리는 재건대. 재건대가 있었고. 종이 이렇게 싸 놓은 거 있지. 고물상

있었으니까. 고물이 많이 나오니까.

**정노천** : 녀마주의?

**최완규** : 예. 재건대

**이길원** : 아니 그 미군부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최완규** : 미군부대가 아니라. 미군은 이미 철수 했고. 우리 어렸을 때. 미군이 좀 남았었지. 그 때 기억으로 꿀꿀이 타 먹으려고 새벽 5시부터 40~50명 썩 쪽~ 줄 서있었어요.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좋게 말하면 부대찌게. 나쁘게 말하면 짬밥. 위엔 담배꽂초가 떠 있잖아. 시가 같은 거. 한 중간쯤 가면. 딱 맛있는 게 걸리는데. 우리는 자세한 거 몰라.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 햄, 소세지겠지.

**정노천** : 쓰라린 과거사군요. 영등포에서 주로 생활하고 오래 사시면서 영등포가 다른 곳 보다 좋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최완규** : 그보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밖으로 외출했다가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안착이 된 것 같아요. 딴 데 가봐야 뒤숭숭한데. 일단 우신극장 썩 들어오면. ‘아~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맘이 편안해져요. 아마 그런 감은 나밖에 못 느끼겠지.

**이윤진** : 태어난 곳이 어디신지요 주소를 외우세요?

**최완규** : 여기지요. 주소도 외우지. 경기도 시흥시 산 153번지. 외우지. 외우지 원칙은

**정노천** : 저도 여기 저 우신극장 운영할 때는 몇 번 영화를 봤어요.

**최완규** :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 우신극장 자리야. 도림신협 건물 자체가 우신극장이지요.

**이윤진** : 사려가 쇼핑. 사거리 옆에 아~

**정노천** : 영등포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개발되고 쫓겨나잖아요.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완규** : 다른 구에 비해서 영등포가 부자였는데. 경기가 훅 떨어진 게. 옛날에 한국타이어나 롯데 등 대기업이 다 이사 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오뚜기, 말표고무신 등이 영등포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사가 버리고 주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인제는 앞으로 잘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정선이** :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최완규** : 사실은 여기 대영고 자리가 영등포구청 자리예요. 영등포구청 자리인데. 대한암흑기(일제시대) 때 지적도 떼어보면 나와요. 일본 애들이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라 이 도시 개발할 때 백년을 보고하잖아. 여기가 영등포구청 지을 자리였는데. 여기 바로 앞(신풍역)에 살레시오 수녀원이 있지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부지를 불하할 때 이미 로마 교황청 앞으로 준거야. 로마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로를 안 내줘버린거야. 그래서 영등포구청이 무산되고 당산동으로 간 거죠. 구청이라면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야 하는데 외길 밖에 없잖아. 오십년대 지적도에 구청자리라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땅값 보상 받느라고 내가 떼어봤

거든. 일본 놈들이 구청자리로 만들었더군요.

**정노천** : 영등포에 특별한 장소라든지.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좀 챙겨야 될. 간직해야 될 장소라던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최완규** : 저 같은 경우는 신평시장이 복개 공사로 도로가 났더라도 신평시장이 기존에 남아 있었는데. 현재 신평시장이 없어졌다는 게 짙 억울하지. 신평시장이 영등포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모가 컸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신평시장이 해군본부 가는 굴다리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성락교회 시장까지 엄청 컸지요.

**정노천** : 철판구이 곱창구이를 먹어 본 기억이 있어요.

**이윤진** : 그 시장이 신남시장, 신평시장. 이게 쪽 이렇게 네 군데가 나뉘어져 있었다더라고. 해군본부부터 성락교회 사거리까지

**최완규** : 규모가 어마어마했지요. 그 시장에 하루 소매로 파는 계란이 구백 판. 천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 많았어.



**이윤진** : 이 동네서 다른 주민들하고 함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거나. 함께 뭔가를 하셨던 일.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최완규** : 아... 그걸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뭐 새마을 회장도 해봤고. 별거 다해봤지요. 안 하려해도 정치하는 사람이 시키잖아. 나중엔 신품친목회도 만들어서 회장도 해봤었지요. 지금 이 동네 토박이 중에서 나보다 오래 사는 사람 두 세 사람 밖에 안 살고 다 죽었어요.

**정노천** : 토박이는 거의 떠나셨군요?

**최완규** : 못 배우고, 못 살아 맨날 술 먹고 그런 생활이 이어졌으니깐요. 그리고 요화 배정자 알죠. 동생이 살던 이곳으로 배정자가 이사 와서 살았지요. 마약쟁이 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 배정자 꼬나풀들이 여기 많이 살아서 이 동네가 옛날에는 아주 험악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쫓아내서 그렇지.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살았어요. 요화 배정자는 대한 암흑기 사람이지. 사십오 년에 독립 됐잖아.

**정선이** : 아니 이 연세까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잖아요.

**최완규** : 본래 성격이. 뭐 파는 계속 외길로 파요. 당구도 한번 치면 매일 이십사 시간 매달리죠. 당구를 잘쳐, 지금은 한 삼백 치는데 그때는 한 오륙백까지 쳤지.

**정선이** : 두 분이 인제 보관을 하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최완규** : 나는 가게 들어온 지가 십년 밖에 안됐어요. 그 전에는 거의 가게에 없었어요. 그냥 한량이었지요.

**사모님** : 카드. 당구. 뭐 그냥 바깥에서 거의 있다가... 당시에는 해태, 오대양, 신라당 납품을 하면 접대를 꼭 해야 돼요. 술을 마시면 이차 삼차까지 갔지요. 아무리 좋은걸 해준다 해도 그 접대를 꼭 해줘야 만이 '아 그 집에 가서 접대 잘 받고 왔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신랑이 술상무 역할을 잘 해냈지요. 3년 후 이곳이 개발되면 이사 가려고. 요 앞에다 넓은 가게를 미리 준비해 놔어요.

\* 인터뷰 진행은 영등포구립도서관 마을기록활동가 정노천, 영상촬영은 구립도서관 김인용 사서, 사진촬영과 녹음은 마을기록활동가 이길원 씨가 담당했다. 또한 마을기록활동가 정선이, 이윤진이 함께 참여했다.





**발행일:** 2021.12.15.

**발행처:**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립도서관

**기획:** 영등포구립도서관 도서관운영팀

**디자인:** 디자인애드

이 책은 2020년 '마이공' 웹진과 인터뷰집의 합본호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의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을이야기를 공유합니다

